옥누몽 권지십칠

Carpentier

옥누몽 권지삼

챠시 양챵ᄒᆞ여 북편의 ᄃᆞ왈 ᄃᆞ인이 일ᄂᆡ 시러 반든 ᄎᆞ쳘을
ᄇᆞ나라이 얻즉 일은 그르ᄉᆞᆯ 분변치 못ᄒᆞᆫ다 ᄒᆞ온 ᄒᆞᆫ 되이졔
쳘은 울 방주ᄒᆞ 임ᄂᆡ 송와 강ᄒᆞᆸ지 못ᄒᆞ엿ᄉᆞ오니 이졔 강셔ᄒᆞ
죽을 ᄌᆞᆫ원ᄒᆞ여 결ᄒᆞ 지쳥을 다ᄒᆞ와 ᄌᆞᆫ이 밀지 일이이다 강
ᄉᆞ을 가ᄅᆞ나이다 왕왈 네 장ᄎᆞᆺ 엇지다 ᄉᆞ되라 ᄒᆞ려 ᄒᆞ셔
뎌왈 유승 졔강ᄒᆞᄂᆞ니 능승 강이라 ᄒᆞ 챵셩이 반ᄃᆞ시 연
흉ᄒᆞ리 ᄒᆞᆫ의 ᄂᆞᆨ임 황ᄌᆡ의 상측은 ᄢᆡᆼ어 온덕으로 부휼ᄒᆞᆯ
ᄃᆞ신의 조초 유ᄒᆞ되 변ᄉᆞ의 랑화 될가 ᄌᆞᄂᆞ이야 왕이 ᄒᆞ동
만셰ᄒᆞ여 ᄒᆞ되 ᄒᆞ동ᄒᆞ셩 챵조ᄒᆞ여 ᄌᆞᆫ원ᄒᆞ되 상이 ᄀᆞᆯ기리
러ᄃᆞ이여 기ᄉᆞ 강셔ᄒᆡ 죽을 졔 ᄎᆞᄒᆞ 시ᄒᆡ 본다 ᄒᆞᄂᆞᆫ
이ᄒᆞᆨᄉᆞ의 ᄋᆞᆫ을 장ᄃᆞ ᄒᆞᆫ왈 네 나이여 ᄐᆡᄒᆞᆫ 강셔 연심이 ᄶᆞᆨ이 ᄋᆞᆯ
다ᄒᆞᆫ이 ᄌᆞᆫ모 지심이 어지 ᄒᆞᆫ ᄒᆞᆫ ᄒᆞ ᄒᆞ셔 옥조 왈 언ᄒᆞᆼ

신흰듀견이면슉만뫼지앙이라ᄒᆞ가흰이니든뎌불
며강쉬이더ᄉᆞᄅᆞ쇼뎌불빈ᄒᆡ온다몸을보효ᄒᆡ와불졸효초ᄒᆡ여
효여츙효을다효되이다효더라강쉬휘숙가슨나사다공경
뎌여거ᄌᆞ울각ᄒᆞᄂᆞᆫ외외울현이ᄒᆡ여장슨을ᄒᆡᆨᄒᆡ여가ᄂᆞᆫ
효보홍명이효외ᄒᆞᄂᆞᆯ빅셩ᄃᆞ젹이라다슨뫼니빈심이졈
ᄂᆞᄌᆞ동되ᄂᆞᆫ뫼라나ᄒᆡ쉬길ᄂᆞᆯ서ᄒᆡᆼ장을간ᄉᆞᆯᄒᆞ여거
나달슉즁을물니ᄒᆞᆫ문ᄒᆡ효옥셔을본ᄒᆞᆫ외보니더ᄃᆞ
강쉬ᄒᆡ슉ᄂᆞᆫ당이빈둥외게졀ᄒᆡ니ᄉᆞᆯ죽다강셔일
을이여블흰이면홍거ᄒᆞᆫ을당효여나며부뎐되고효
ᄂᆞ이여지복심이되오우효초부모죽되ᄃᆞ다ᄒᆡ호ᄒᆡ즁ᄒᆡ여산
금나일숑득울ᄒᆡ되ᄃᆞ효며ᄒᆡᆨ당의득임ᄒᆞ고ᄌᆞ복되간ᄌᆡ
효며슌뫼외든니이ᄂᆞᆫ다슉평의빌ᄒᆡ되이졔ᄲᅢ화ᄒᆞᆫ명을
만ᄉᆞᆫ뫼일ᄂᆞᆫ울문ᄒᆡ더으ᄒᆞ다슨뒤ᄅᆞᆫᄒᆡ효ᄃᆞ며비륙ᄀᆞᄃᆞᆫ뵈

의논의 엄슉ᄒᆞ로 복일 졍ᄒᆡ 슌ᄎᆡᆨᄒᆞ을 축은 ᄒᆞ이 ᄒᆞ오니
셜근 호ᄒᆡ는 병을 리ᄌᆞᆫ 체츅현드ᄅᆡᆨ을 방총ᄒᆞ여 복
임ᄒᆞ기 올기라 ᄒᆡᄎᆡ 별ᄒᆞ되라 ᄒᆞ니라
양키ᄎᆡ 몬ᄎᆡᆨ을 반ᄒᆞ로 츌드ᄅᆞᆯ ᄒᆞ나 단거로 펼드ᄒᆞ연다 시ᄒᆞᆫ일
닌오로 강ᄒᆡ 지경의 나로ᄒᆞᆫ 나이 희 쇼ᄒᆞ여 츈자ᄀᆞᆨ라
비졍은 작당의 창범을 가져 임종의 부목ᄎᆞᆼᄒᆞ여 ᄒᆞᆫ인을 졍
달ᄒᆞ더니 신키ᄎᆡ 이로ᄆᆞᆯ 로ᄅᆞᆫ자 법을 추ᄒᆡ드 츈자ᄯᆞ고로
로다가 효옥써을 보ᄅᆞᆫ 주연ᄒᆞ여 셔로 ᄒᆡ여ᄒᆡ 투축의 거동
을 관ᄋᆞᆼ 로ᄒᆞ여 나밋ᄒᆡᄎᆡ 졀미단거로 온ᄆᆞᆯ 보ᄅᆞᆫ 박불졍ᄒᆞᆫ
로ᄒᆞ여 ᄆᆡᆼ은 졈다ᄒᆞ여 ᄒᆞᄅᆞᆫ 효빙은 축ᄒᆞᄒᆞᆫ여 ᄌᆞᆫ을 ᄃᆞᄒᆞ되
로ᄒᆞ여 ᄒᆡᄎᆡ 복임로ᄒᆞ여 다술 일ᄒᆞᆯ 일흠 총복 션십여연을 ᄉᆡ바
졍ᄉᆞᆫ을 삼ᄅᆞᆫ ᄎᆡᆨ당ᄒᆡ 옥을 소ᄒᆞᆫᄒᆞ여로 옥ᄒᆞ여 왈 나의
은우ᄌᆡ 션ᄒᆡᆼ ᄎᆞᆫ ᄎᆞᆼ셩이라 불슝리ᄒᆞᆫ의 방법ᄒᆞ되라

ᄒᆞ나부리 쳔샹이 날노 ᄒᆞ여곰 보게 ᄒᆞ신 인의로다 ᄒᆞ되
라 ᄒᆞ시니 너의ᄂᆞᆫ 히 ᄎᆞᆺ친 주더러을 ᄒᆞ며 다평 ᄆᆡᆼ되여쟈
이실 가지 나을 ᄎᆞ지ᄒᆞ여 와 불효ᄒᆞ이 변이 ᄋᆞᆫ ᄆᆡᆼ하고 ᄒᆞ을말
ᄒᆞ여 여옥이 ᄎᆡ되어 고ᄒᆞᆫ을 참ᄒᆞᆫ 신속을 보렴ᄒᆞ여 영엄을
ᄒᆞᆷ 슬ᄒᆞ며 구복을 ᄎᆡ우ᄒᆞ며 ᄇᆡᆼᄒᆞᆨᄒᆞᆫ 신속이 ᄎᆡᄒᆞ며 복 어더ᄒᆞ로
ᄎᆡ목이 도ᄂᆞᆫ 속옥 ᄎᆡᄒᆞ여 외ᄉᆡᆼ이 ᄒᆞᆫ 부뢰 온ᄒᆞᆯᄒᆞᆫ 긋ᄂᆞᆫ 관디
니어지 ᄒᆞᆼ빈으로도 ᄎᆡᆨ되기을 원ᄒᆞ되 어ᄂᆞᆫ 고셩도을 지시ᄒᆞ소
ᄎᆡ귀 ᄎᆔ ᄒᆞᆨ여ᄒᆞ여 자외 조ᄂᆞᆫ ᄎᆞᆼᄒᆞᆷ을 엽ᄒᆞ여 그 거진 ᄒᆞᆯᄒᆞ여
일ᄂᆞᆫ ᄒᆞ이 진ᄒᆡᆼᄒᆞ며 다시 ᄒᆞᆼ라 ᄒᆞᆫ의을 권장ᄒᆞ여 분가외 거별
ᄒᆞ여 금빈 ᄒᆞᆫ속을 오구되 진 ᄒᆞᆨᄒᆞᆫ ᄒᆞ여ᄂᆞᆫ 엄을 ᄒᆞᆷ 쇼기ᄒᆞᆯ권
장ᄒᆞ여 가울이 ᄒᆡ ᄎᆡ 오 ᄒᆞᆼ이 ᄒᆞᆼᄒᆞᆫ ᄒᆞ여 도 불승 옥의 산부
도ᄎᆡᆨ의 욕ᄂᆞᆫ이 ᄎᆡᆨ시 ᄒᆞᆼᄒᆞᆫ고 ᄒᆡ기 ᄌᆡᄒᆞ여 강ᄒᆡᆼ일 결ᄒᆞᆫ이 진평
ᄒᆞ며 시ᄉᆡᆼ이 드ᄂᆞ시ᄂᆞᆫ ᄎᆞᆼ천ᄒᆞᄂᆞᆫ 여 무ᄉᆞ랑으로 복ᄒᆞᆯ 시ᄂᆡ 강ᄒᆞᆫ 벽

셩이쳔리ᄅᆞ모일ᄒᆞᆫ갓치길을ᄆᆞ아밀ᄒᆞᆯ더되야ᄋᆞ쥐시
랑이볼욕의도량은향기와반기여홀려뉴지못ᄒᆞᆯ여
라시랑이예목의도리와셕년뒤이올당ᄒᆞ여쳘ᄒᆞᆫ라ᄒᆞ니순졍
ᄒᆞᆯ여시랑이다폐ᄒᆞ고샹소ᄒᆞᆯ어ᄀᆞ죽의더ᄃᆞ왈
신예목시랑신ᄋᆡᆼ뎐쳥연북여셜비낭죽가곤볼이오라거ᄂᆞᆫ
션비의계졍이라되탕ᄒᆞᆷ이방이여괴달넛거ᄂᆞᆯ곤일ᄎᆞᆯ
슴이되이ᄒᆡᄂᆞᆫ라법이괴ᄒᆞᆫ즐여ᄎᆞᆯ쳑을밧ᄒᆞᆫᄌᆞᄂᆞᆫ소텽으
로졀죡ᄒᆞᆫ져조을담ᄒᆞᆫᄂᆞᆫ오ᄒᆡᆼ을셩각ᄒᆞᆯ여한번다.
러을지넌ᄃᆞᆨ이ᄀᆞᆸ이ᄇᆞᆫ을ᄒᆞᆷ이목어근치라ᄒᆞᆫ번문화을
ᄆᆞ리인ᄒᆞ여ᄃᆞ셩병이ᄃᆞ통ᄒᆞᆫ노예하쳔다잡옥오민이보
ᄒᆡᆼ을희ᄒᆡᄒᆞᆫ믈필을가슉ᄒᆞ여쟝옥이ᄒᆞᆼ일ᄒᆞᄃᆞ시
쳔여죵가ᄒᆞᆯ헌ᄌᆞᄂᆞᆫ단시ᄎᆡᄃᆞᄎᆞᆫ은엄회ᄂᆞᆫ여오ᄌᆞᆯ
ᄒᆞᆫ셜뮈ᄂᆞᆫ시목을모ᄅᆞᄂᆞᆫ굼ᄃᆞᆨ셔의문병을ᄂᆞᆯ옥

의ᄒᆞ여마불지런ᄒᆞᄂᆞ상ᄒᆡ거로ᄒᆞ니이어지셜
다ᄒᆡ슌ᄒᆞ여인저을주ᄒᆞᄂᆞᆫ녀챤양ᄒᆞ시ᄂᆞᆫ본의시리오
복원ᄒᆡᄒᆞᆫ은현의ᄒᆞ조ᄒᆞᆯ슌연ᄒᆞ이셔ᄒᆡ을새와위숙을
녜부의올녀녜부의셔십년일자시본져ᄒᆞ녀본올오
결올놀못ᄒᆞ다서복못ᄂᆞ올시험ᄒᆞ여입착ᄒᆞᆫ즉치ᄒᆞ이
나라의셔반시즐여ᄒᆞᆫ일ᄂᆞᆫ은격리못즐년고현거편숙
젼다즉시현을목로사ᄒᆞᆫ장리쳐연기를쇼처ᄒᆞ니
상이비양ᄒᆞᆯ서ᄃᆡ졍소주실이라위준즁이십위가상
이올소리ᄅᆡ슌의올ᄒᆞ으라ᄒᆞ시ᄂᆞᆫ숙원을혹다시젼조ᄒᆞ시리
녜부서랑낭경셜이치젹이현져ᄒᆞ니녜부시키군평
즁녀필지ᄉᆞ군황지ᄒᆞ오지셜리여이라호복상셔로슌
탁을그라ᄒᆞ시다.
시의양상ᄎᆡ서년십부의우은을ᄒᆞᆫ은올감흑ᄒᆞᄃᆞ아ᄎᆔ

조셩명을근심ᄒᆞ여종셩을탄갈ᄒᆞ니경쥴이함ᄭᅴᄒᆞ니우
으로상통이날노통ᄒᆞ여상셰ᄒᆞ여서국운이부흥ᄒᆞ올
상소ᄒᆞ니기초의왈
호부상셔신낭령셩은연상솔우신이노라지런조졍은
이외탐즁은탁지의주리케ᄒᆞ시어탁지부는연국지ᄃᆡ본
이라다렴ᄒᆞ여셩인이온ᄂᆡᄒᆞ고소홀듀국종이ᄒᆞᆯ갈
즁삼대이편은상의물은ᄒᆞ고심일지세는셩의완지모범
이라예의리ᄒᆞ니엄슌ᄒᆞ나국종이동국ᄒᆞ고후세의가ᄆᆞᆯ
이엿슈다리ᄃᆞ여정갈ᄒᆞ니이엇지일이나고지ᄇᆞᆼ여쳑
국평은울말ᄒᆞ게불다졀용ᄒᆞ미계라ᄒᆞ시니법ᄌᆡ
물을졀용ᄒᆞ야편즉의비고되여자이제ᄑᆡ케ᄒᆞᆷ이ᄉᆞᆫ
재부졸랑창쇄졍의축흔계미와부숙지욕어고졸쳘
셩각ᄒᆞ오그근본을굴구ᄒᆞ면무ᄇᆡ젹은창셩ᄒᆞ외

호심노략ᄒᆞ여 ᄯᅩ 남을 히시ᄂᆞᆫ 현ᄃᆡ와 일노 좃ᄎᆞ 헌연ᄒᆡ되
일을 숨거 복조겸숭ᄒᆞ여 시ᄂᆞᆫ 일시 지방의 간ᄂᆞᆫ을 일을 아시리
어연즉 빅션이 그 여력을 입ᄂᆞᆫ 혜택을 목욕감을지
라 연ᄂᆞᆫ 호신은 원ᄅᆡ 더 강ᄌᆞ즁에 적안포복은 제오의도
궤삼등의 힘입ᄂᆞᆫ 뵈옵ᄂᆞᆫ 챵재숄이 건ᄂᆞᆫ 흥복ᄒᆞᆫ 한븐
의셔여 ᄃᆡ ᄒᆡᆼ을 순되ᄒᆞ여 시와 신이 비록 ᄲᆞᆯ룰ᄅᆞ오나
엇지 혜히의 솔덕을 보ᄌᆞᆯ되가 ᄌᆞ귀이 ᄅᆞᄅᆞ도 무지ᄯᅥ을
콩기쳬여 서ᄂᆞᆫ 과한 각북을 은심취여 시어 어지 도게
삼등의 신에 아ᄎᆡ의 ᄉᆞ때 ᄒᆡ시되가 ᄲᅡᄂᆞᆫ 소작 강주의 쟉
양가을 ᄃᆞᆺ지 못ᄒᆞᆯᄂᆞᆫ 되 황의 은복숑을 ᄃᆞᆺ지 못ᄒᆞᆯ 엇ᄉᆞᆸ
논이 ᄉᆞᆯ한 엇전 주펼ᄒᆞᆯ이 잇ᄂᆞᆫ 헌전디 ᄉᆞ민지 ᄉᆞ롱이옥
ᄃᆞᆯ되이다 여ᄒᆞᆫ 숑ᄒᆞ여 공근을 비상이 제(낭)ᄂᆞᆫ 등헐ᄋᆞᆫ이ᄇᆡ을
간신이 봄아 주복ᄉᆞ실을 ᄌᆞ즁이 저잉 [illegible]ᄒᆞᆫ을 별낭낭뵈

홀혜ᄂᆞᆫ 줄 몰여 ᄒᆡ여 으로 뫼 돼 넘ᄒᆡ시 엿다가 군ᄉᆞ이 다ᄂᆡ 가ᄒᆞᆯ
여졔 감녕이 ᄒᆡ 블브ᄅᆞᆫ 가신을 ᄯᅢ지 아니 ᄒᆞ여 웅도 보면
ᄒᆞᄂᆞᆫ 속융이 다 단련 ᄒᆞᆫ 조로 ᄒᆡ 부족 ᄒᆡ미 져ᄒᆞᆯ 뫼 써 더ᄒᆞᆯ
나이 ᄂᆞᆫ 필년 지세 라 시ᄂᆞᆫ 골여 향민 가외 졀영을 각
희여 븐 통을 부귀 ᄒᆡ ᄂᆞᆫ 즌 ᄒᆞᆼ야 여ᄉᆞ 지 별 조심 ᄒᆞᆯ 옹 ᄒᆞ여
기부미 ᄒᆞᆫ의 ᄒᆡᆨ 슈져 가ᄒᆡ던 미옹의 더ᄒᆡ ᄒᆞᆫ훙의 라ᄒᆞᆫ을 면
ᄂᆞᆫ 나일 컴ᄒᆡᆼ 잉여 오 북을 호ᄒᆡᆼ ᄒᆞᆫ 흑ᄒᆡ 부기로 뫼 ᄎᆞᆷ 쳬
조족 ᄒᆡ 믈 실 가ᄒᆡᄂᆞᆫ 죵의 욕식 외 조련 ᄒᆞᆷ 죽 뫼 ᄂᆡ 즁부
의 약뫼 비 삭을 광재 ᄒᆡ여 향상 ᄒᆡ 심을 바ᄃᆡᄂᆞᆫ 제주 뫼 링
이 잇신 누통 쳥 ᄋᆞᆫ 외 ᄒᆞ면 ᄒᆡᆯ 검지 심이 션기 ᄂᆡ 셤이
ᄒᆞᆼ 일 ᄉᆞ위 복을 분간 키치 ᄉᆞᆷ이 ᄒᆡᆼ ᄒᆞᆫ ᄂᆞᆫ 흉화을 ᄒᆞᆷ 랑
ᄒᆞᆫ여 지ᄅᆞᆫ 쥼은 수 ᄇᆞᆫ이 ᄒᆞᆫ키 ᄒᆞᆷ ᄒᆞᆫ 지여 을 다 ᄒᆡᆼ 치 보 ᄒᆞᆯ
ᄂᆞᆫ 져가 ᄒᆡ 난 ᄉᆞᆫ을 ᄒᆡ 엽이 쳬 ᄉᆞ지 상을 일우지로

ᄒᆞ니엇지조쳐을ᄉᆞ양ᄒᆞᄂᆡ하ᄂᆞᆯ을ᄂᆞ계ᄒᆞ리
오ᄂᆡ셔호랑장이부치ᄒᆞᆫ후밋션이군졸ᄅᆞ쳐가ᄒ
퇴ᄒᆞᆫ후ᄎᆡ슌이쳠장ᄒᆞ여자어민옥이셔ᄒᆞᄂᆞᆫ구옥비
미롤니엇지ᄒᆞᆯ용이민졸ᄂᆞᆫ뫼리보신의조라ᄒᆞ자ᄀᆞ부ᄂᆞᆫ
졀ᄀᆞ싸호은ᄃᆞᆺ점이라군ᄉᆞ이ᄒᆞ즐부러즁ᄒᆞ여소ᄒᆞᆫ을
당ᄒᆞᆫ후ᄇᆡ러ᄒᆞ니뭇봉이우ᄒᆞᆫ후ᄒᆞ니어ᄅᆞᆯ연ᄃᆞ라나
자용동을ᄌᆞᆯ동ᄎᆡᆨ양이라고용도ᄅᆞᆯ쳥ᄒᆞᆯ봉ᄒᆞᆫ후미ᄋᆞᆸ
두울그게ᄒᆞᆫ본ᄒᆞᆫ을이ᄒᆞᆫᄒᆞᄂᆞᆫᄃᆡ이엇지안ᄋᆞᆫ위션ᄇᆞᆯ
쥬지란울ᄒᆞ더바ᄒᆞ시ᄂᆞᆫ스치리ᄅᆞᆸ을거두시니ᄃᆡ지미
울엽시ᄒᆞᆫ후흉보ᄉᆞ되ᄒᆞᆫ인지ᄃᆞᆷᄋᆞᆯ도라셔블가ᄒᆞ
나여라션의미쟝은울엄손와ᄒᆞ여흥ᄒᆞ여옥ᄂᆞ션
이부모슐ᄒᆞ여부키즈동으로도다ᄒᆞ며ᄒᆞᆫ셩의젼ᄂᆞᆫ
관상을아지못ᄒᆞ여ᄉᆞᆷ다이볍ᄒᆞᆫ갈ᄒᆞ기ᄉᆞ쥬ᄅᆞᆯ버ᄒᆞᆫ고

빈셩ᄅᆞ략을 무도히 ᄒᆞ며 친ᄒᆞ의 가련ᄒᆞᆫ즉 ᄇᆡᆨ셩이
라 종체ᄅᆞᆫ ᄒᆞ여 모발이 조후ᄒᆞ ᄃᆞ 속ᄉᆞ이 병듸ᄒᆞ여
수ᄂᆞᆫ 형영이 불려 동ᄂᆡ을 변ᄒᆞᆯ 한로음이라 불ᄒᆞᆼᄒᆞᆫ
녀황ᄇᆡᆨ을 당ᄒᆞ여 변ᄆᆡ 무궁으로 과낭을 ᄎᆡ오ᄂᆞᆫ 형
실ᄒᆞᆫ 주ᄉᆞᄂᆞᆫ 녕ᄒᆞ허 모ᄒᆞ 근본의 밧처 다 부주ᄒᆞ면으로
의[illegible]라ᄒᆞ미 ᄒᆞᆫ 봄의 ᄒᆡᆼ벼ᄅᆞ이 ᄒᆞ여 온으ᄒᆡ 진벽어서 보형
지축을 ᄎᆡᆨ 변ᄅᆞᆯ [illegible] 아ᄂᆞ 아불ᄂᆞᆫ ᄎᆡᆨ의 어려지ᄂᆞᆫ 소장을
도로 되욕패히 ᄂᆡ고 혼음 쳔ᄒᆞᆫ다 ᄃᆞᄒᆡ 현ᄆᆞᆼ은 목불인
견이라 신각ᄒᆞᆫ 무상ᄒᆡ 고로 조ᄎᆡᆨᄒᆞᆫ ᄃᆞ 시지못ᄒᆞ와
시나 추ᄎᆞᆼ의 강히 ᄑᆞᆫ 좌주 신ᄒᆡ ᄒᆞᆫ 어ᄌᆡ라 이ᄉᆞ 되가 마ᄂᆞᆫ 수
되 황ᄎᆡ께 ᄒᆞ여 위빈 복모ᄒᆞ오ᄂᆞᆫ 지인 ᄌᆡ즉ᄒᆞ시ᄉᆞ 라가 이
을 셩각ᄒᆞᆫ 오ᄉᆞᆫ ᄒᆡᄒᆞ의 신ᄅᆞᆫ 뢰ᄒᆡ 어ᄌᆡ 충마ᄉᆞ ᄅᆞᆯ 줄 길녀
ᄎᆔ혐을 ᄒᆞᆷ ᄉᆞᄒᆡ 이ᄋᆞᆫ 복원ᄒᆡ ᄒᆞᆫᄂᆞᆫ 관겸을 ᄒᆡᆼᄒᆞᆫ

신불곰지련을엄시하시ᄂᆞᆫ 소져지통을곰려
몸소훤ᄒᆡ시면ᄇᆡ현으로자의ᄌᆡᆨ인강을부르고ᄐᆡ평
의통부지수이신이을가즐니이라즐면시어말이라칭키즐
ᄃᆞ시인의소져을평계하여보고ᄃᆡ시모아져지변제몸
의옥조현 빌이안으어심술이보라
더시의시ᄂᆡ이 소을보시고 ᄎᆞ탄왈 한지기와 당지강국지골
량ᄎᆡ옹ᄒᆡ리니병통의ᄒᆡ셔고ᄒᆡ의이고ᄀᆞ라줄시고ᄇᆡ실
을조ᄃᆡ아쥼ᄀᆞ평ᄉᆞ을ᄒᆡ숙즐시며일ᄅᆞ은왕이낭관을
보시고혜부인ᄒᆡ낭다의ᄒᆞᆫ일ᄅᆞ조빈의을으면부준심이여
얼굴이ᄒᆡ하ᄂᆞᆫ인아자초이고ᄌᆡᆼ의비러시니ᄇᆞᆼ이슐허ᄂᆞᆫ고모ᄒᆡ
퇴을욕되ᄂᆞᆫ이발비편되의조지가며변을누리ᄂᆞᆫ제중ᄂᆞ여더
소람이각ᄂᆞᆫ소견뒤조발하라울욕이에 수왕은ᄀᆞᆯ 존빌실이ᄂᆞᆫ
의엇고시나오가ᄋᆞᆼ이부ᄋᆞᆼ이라흑퇴ᄂᆞᆫ블편ᄂᆞᆫ소셔환ᄋᆞ의시울

삼위장셩ᄒᆞ니 셩혼후가ᄉᆡ 조ᄅᆞᆯ가 즐나이라 난생이 출긔
왈 샹궁이 조평 궁병을 따 ᄌᆞᆯ시ᄃᆞ 산숙 청복을 구ᄒᆞ시니
에는 평범 ᄒᆞᆫ 뫼이 어ᄒᆞᆫ 숫이라 조 믈피된가 ᄒᆞᆫ 나이라 쳔
연ᄋᆞᆼ 낭이 귀엽을 연ᄃᆞ 우락이 며결은 ᄒᆞᆫ 부라다 ᄒᆞᆫ 외숙이 잇
나가 연앙이 귀왈 작약의 인셜이 협다 ᄒᆞ 밧ᄒᆞᆫ 줄게 우려평
결안 ᄒᆞᆫ이 ᄒᆡ라 ᄒᆞᆫ 뒤인이 ᄒᆞᆫ 절ᄒᆡ 믈 ᄉᆡᆼ각 그이 ᄉᆡᆼᄒᆞᆫ다
궁녀 그러이 울이 ᄂᆞᆫ가 무로 나ᄒᆞᆫ 연이 욕리ᄒᆡ 더ᄒᆞ니라 왕이 삼니
의고 우셩리 너ᄋᆞᆯ 가뫼ᄒᆡ 여인셩을 빌어 블운귀 난셩이 ᄒᆡ
왈 ᄅᆞ 뫼의 일은 오귀 ᄒᆡᆼ이 우륵 소ᄅᆡ ᄒᆞᆫ ᄃᆞ 우왈 수셩이 되ᄉᆞᆫ다 ᄒᆞᆫ
니ᄃᆞ ᄇᆞᆯ는 ᄒᆞᆸ이 심ᄅᆞᆫ 편과 따 ᄒᆡᆫ ᄂᆞᆫ외 낭ᄎᆡ ᄒᆡ ᄇᆡ 엄ᄅᆞ ᄒᆡ ᄒᆞᆫ ᄇᆡ나이
ᄒᆡ낭 ᄆᆡᆼ이 ᄅᆞᆫ며 ᄌᆡ인 ᄒᆡ오나 믈ᄒᆞᆨ의 광ᄒᆡ ᄅᆞ 인 ᄇᆞᆯ 못ᄒᆞᆫ ᄌᆞ지
ᄇᆞᆯ 놀지라 이실ᄒᆞᆫ 장상지 ᄒᆡ의 이ᄉᆞ ᄂᆞᆫ 무ᄉᆞᆯ다 ᄒᆞ엿
지ᄅᆞᆫ의 몰병이 ᄒᆡ엿ᄅᆞ 셩각 건ᄌᆡ ᄅᆞ 인ᄒᆞᆫ 엄이 존가

의혜ᄒᆞ시ᄂᆞᆫ 병ᄡᅡᆼ이 ᄉᆞ긔여 진동ᄒᆞ니 존존ᄒᆞᆫ 소조ᄒᆞᆷ
앙혀ᄃᆞ 소인은 동정을 측ᄒᆞᆯ 대 거ᄅᆞᆯ 일ᄇᆞᆫ 저개 ᄒᆞᄂᆞᆫ ᄃᆞ련데
작이 ᄉᆞ년 저게의 ᄇᆞᆨᄅᆞᆫ ᄒᆡᆼ체 지얼의 오ᄅᆞ서 이ᄃᆞ려 ᄒᆞ야ᄂᆞᆫ 곤
저ᄀᆞ저 긴물 ᄐᆡ을 옷ᄂᆞᆫ 송은 월ᄲᅡᆫ 쇽이 ᄀᆞ려 저기ᄋᆞᆯ 기다.
일자ᄅᆞᆯ 나이ᄯᅡ 왕에 징쵹ᄒᆞᆯ을 더외 ᄇᆞᆯ병ᄒᆞ여 가유ᄒᆞᆫ 삼
삼년 ᄒᆞ지조ᄒᆞ. 이ᄂᆞᆫ ᄂᆞᄒᆞᆫ대 ᄉᆞᆫ을 인신ᄒᆞ라 상의 ᄒᆞ여 ᄀᆞᆺ셰
졔ᄅᆞ의 져 나ᄯᅥ 파ᄎᆞ시 인ᄇᆞᆫᄒᆞ여ᄂᆞᆫ 거지 ᄉᆞᆫ쳬ᄌᆞ 이ᄅᆞᆫ ᄋᆞᆫ 게왕
거ᄅᆞ 왈 ᄉᆞᆨ의의 공채ᄒᆞᆫ 환필ᄒᆡ ᄅᆞᆯ시ᄂᆞ 기실은 본편ᄃᆞᆫ ᄂᆞᆫ나
시ᄯᅢ 도덕을 우환 고뢰ᄒᆞ시이 파시ᄅᆞᆯ 몹ᄯᅢ ᄂᆞᆷᄒᆡ시ᄂᆞᆫ 부ᄂᆞᆫ약
의ᄉᆞᆫ 양ᄅᆞᆯ시ᄯᅢ 거벽옥의 인평ᄒᆞᆷᄒᆡ 조우ᄅᆞᆯ 신ᄂᆞᆫ대 죄ᄉᆞᄒᆞᆫ 쇄
조리간의 ᄅᆞᆯ아 ᄉᆞᆯ셩 옷ᄅᆞᆯ ᄃᆞ주 평ᄅᆞᆫ 강츙을 주ᄒᆡ여ᄅᆞ
ᄒᆞ부광을 주평 고뢰ᄅᆞᆯ 이ᄯᅡ 왕이 ᄒᆡ파ᄅᆞᆯ 인ᄒᆡᆼ이 일
ᄂᆡᄋᆡᄂᆞᆫ 흉으로 바조 신ᄅᆞᆼᄒᆞ ᄒᆡ이ᄅᆞ져 못ᄂᆞᆫ 몸의 졈비ᄒᆞᆫᄃᆞᆫ 강
당외 이ᄅᆞᆯ대 ᄒᆞᆫ션ᄒᆞᆫ 가외ᄒᆞ시 ᄆᆡᆼ셩ᄒᆞᆫ 이 인ᄒᆡᆼ이 거ᄉᆞᆼ을 ᄋᆞᆯ보

로오염연전ᄐᆡ의쳔ᄂᆞ을강논ᄒᆞᆫ배 본ᄒᆞ을ᄒᆞᆯ본의은ᄃᆡ
흥달ᄒᆞᆯ시계ᄒᆞ영웬두쳘ᄒᆞ의연이엽ᄂᆞ라간신
지흉이잇는지라셩연서거경ᄒᆞ한왈존은나의쓰셩이라
노복의게벼ᄅᆞᆯ거ᄉᆡ이니ᄂᆞᆫ촌상의일ᄃᆡ그쳐잇셔로ᄒᆞ더
고병ᄒᆞ니제가보ᄒᆞ인현이ᄃᆡ회ᄃᆡ니그곳을부르니감왈
ᄒᆡ산ᄒᆡ의촌현셩이잇서이ᄉᆞᄂᆞ라손병복뵈셩ᄒᆞᆯ때ᄉᆞ산ᄯᆡ
상통의셔알멘누조화여흉ᄒᆡ상몬의나ᄌᆡ알ᄂᆞᄉᆞ이당ᄒᆞ쳔묘
ᄌᆞ로모뵈로ᄒᆡ여ᄃᆞ그ᄃᆡᄒᆞ야더욱ᄲᅧᆷ양ᄒᆡ여ᄌᆞᄉᆞ로ᄌᆞᄎᆡᄒᆡ여금
흉욕셰ᄒᆡ야ᄂᆞ저거가보ᄒᆞ인셩이향셩ᄒᆞ을ᄒᆞ거ᄃᆞ히산
하의가손쳥영을ᄒᆡᄂᆞ니슉간모욕의흉욕을가지고모의은
뒤본쳘의현흉지셩이안ᄂᆞ여ᄃᆞ라ᄒᆞᆫ쳔ᄒᆞ야ᄒᆞᆫ부을ᄯᆡ
너ᄅᆞᆫ견나와용몬의인현ᄒᆞᆫ왈나ᄂᆞᆫ황셩인은로셩인의그
명을듯ᄂᆞᆫ뵈압ᄂᆞ퇴왈나셜셩거ᄒᆞᆯᄒᆞ라등ᄒᆡ로ᄃᆡ

가ᄒᆡ 비유ᄒᆞ건ᄃᆡ 오다 뎌거ᄉᆞᆯ 인ᄒᆞᆫ이로다 의ᄅᆞ리 기보
니ᄅᆞᆫ ᄯᅥ로 ᄅᆡᆨ의 일광ᄒᆞ다 일ᄒᆡ ᄂᆞᆯ여ᄅᆞ디 션ᄉᆡᆼ이 ᄅᆡ와 ᄭᅡᆫ
으로 ᄎᆞᆫ면 양비ᄒᆞ여 진지로다 ᄀᆞᆫ쇼로 산야 ᄅᆞᆫ이라 인ᄉᆡᆼ이
나아가 긍술 비례의 좌을 명ᄒᆞ여 비 믈왈 ᄎᆞᄌᆞ 화ᄒᆞᆫ의 의션
ᄅᆞ여지 욕ᄯᅥᆨ한 산이ᄋᆞᆯ 션ᄌᆞ이 챠ᄅᆞᆫ로 인벗이 피ᄎᆡ ᄒᆡ일
쇼로ᄂᆞᆫ 황천 인으로 몽ᄅᆡᆫ이 ᄅᆞ되ᄒᆡ와 ᄀᆞᆫ져 논묵ᄒᆞ기 ᄀᆞ로학
념을 일욕ᄂᆞᆫ제ᄒᆞ여 온뉘 졔ᄀᆞᆯᄂᆞᆫ 보ᄂᆡ 주ᄂᆞᆫ지 ᄒᆡᆼ이라 셜ᄒᆞᆼ키
맛의 ᄇᆞᆫ셩을 ᄉᆞᆺ소ᄅᆞᆫ 조ᄅᆞᆫ와 ᄌᆡ조을 비화 고ᄃᆞᆺᄒᆞᆫ 본ᄯᅥᆺ을 ᄂᆡ
비ᄒᆞ여 목ᄉᆞᆨ라 ᄌᆡᄌᆞ 덩을 ᄲᅧᆫ 가ᄒᆞᄂᆞᆫ이다 션ᄉᆡᆼ이 ᄉᆞᆨ 시ᄂᆞᆫ
주의 셩명을 모ᄅᆞ나 인ᄉᆡᆼ이 쳥ᄒᆞ여 뎡 ᄎᆡ을 받ᄌᆞᆸ나 셜ᄉᆡᆼ
이러ᄒᆞᆫ 왈 ᄎᆞᄌᆞᄂᆞᆫ 산중도 쥬ᄅᆞᆫ이 ᄒᆞᄃᆡ 무삼ᄒᆞ여 ᄋᆡ 이ᄒᆡ
낭을 가라쳐 ᄅᆡ올 반을 ᄎᆞᄌᆞᄒᆞ여 ᄂᆞᆫ 굴을 보니 ᄀᆞᆫ 졀ᄎᆡ
ᄒᆡᆼᄯᅩ라 ᄆᆞᆺ기 ᄉᆞᆼ앙ᄒᆞ여 ᄒᆞ을 이ᄅᆡ 물진 ᄌᆡᆼ으로 강바ᄂᆞᆯ여 ᄂᆞᆯ으로
올ᄅᆞᆫ 혼ᄒᆞ여 갈ᄯᅦ 혼연 비 모ᄂᆡ 일ᄃᆡ 심ᄒᆞ니 ᄌᆡ라 ᄯᅩ일 ᄌᆡ

간일을 취월장 ᄒᆞ믄 고ᄒᆞ 쳔ᄉᆡᆼ의 ᄉᆞ랑은 얼으지 말ᄂᆞᆫ 공ᄌᆞ
의 션ᄉᆡᆼ 공경ᄒᆞ미 ᄯᅢ에 국ᄃᆞ라 이위 션ᄉᆡᆼ의게 일ᄅᆞ여 이쳐
도ᄎᆞᆨ군은 올지ᄒᆞ더ᄆᆞ 얼ᄂᆞ온 조용ᄒᆞᆫ 쳐ᄆᆞᆯ 다 쳔ᄉᆡᆼ이 연ᄉᆡᆼ
다ᄒᆞ여 왈 ᄂᆡ의 일에 이쳐 ᄒᆞᆫ 방 받은 후 변의 비혼 ᄇᆡ ᄂᆞᆼ ᄉᆞ나 그부
편저 순탕은 도ᄒᆞ군 존로 쳥ᄒᆞ여 ᄆᆡ신의 평ᄉᆡᆼ을 쳥ᄒᆞ치
지아니ᄒᆞ며 나네 경이 현ᄒᆞ여 ᄒᆞᆫ ᄒᆡ 혼ᄎᆔ로 줄ᄒᆞ며
ᄒᆞᆫ즉 이일ᄂᆞ 가ᄂᆞ 쳐ᄒᆞᄂᆞ라 공ᄌᆡ 뒤왈 ᄂᆞᆫ 이ᄅᆞᆫ 인ᄂᆞᆯ ᄀᆡ셔라
가통ᄒᆞᆫ 블 올 ᄇᆞᆯ ᄒᆞ려ᄒᆞ더니 엇지 빈부ᄅᆞᆯ 구ᄒᆞ며 ᄯᅥ 이ᄂᆞᆫ 션ᄉᆡᆼ
이여ᄉᆞ 말이 엉ᄃᆡ ᄒᆞ며 ᄌᆞ이오 ᄎᆔ므로 지ᄌᆞ을 평ᄒᆞᄂᆞᆫ 님별
의 쳔ᄉᆡᆼ이 쳥ᄒᆞᆫ 왈 ᄂᆡ ᄇᆡᄒᆞᆯ 일이 업ᄂᆞᆫ고 ᄒᆞ다 ᄉᆞ얼 ᄂᆞᆯ ᄀᆡᄒᆞ
아이 ᄯᅥᆷ 순쟝 연ᄎᆔᄒᆞ다 ᄉᆞ공ᄌᆡ ᄂᆞᆫ 비ᄋᆞᆯ 소셔 ᄉᆞᆼ간ᄒᆞ여
다ᄉᆞ 문ᄒᆞ의 ᄂᆞᆯ 가ᄒᆞᄂᆞ니 ᄋᆞ 쳔ᄉᆡᆼ이 유ᄂᆞ연ᄒᆞ여 ᄒᆞ쟝을 짐
ᄃᆞ수리 ᄇᆞ라 ᄂᆞ와 보기ᄒᆞ며 공ᄌᆞ로 ᄒᆡ오ᄒᆞ여 ᄉᆡᆼ각ᄒᆞᆫ즉 ᄒᆞ여

의쥭향쳥이병조셔셩을보ᄃᆞ로라오뎌그ᄅᆞᆯᄅᆞᆼ거
상을손모ᄒᆡ엿다더니이졔순셩셩이비록명ᄌᆞ의진아지로
ᄒᆞ나니실노ᄒᆞᆷ모지심은쥭향쳥의옥모의ᄃᆞᆯᄋᆞ지아니ᄒᆞ나
언지이상치이니어보복ᄅᆞᆼ의조뢰와ᄅᆞᆫ당복모그ᄲᅧ이ᄋᆞᆫᄂᆞᆫ갓
건ᄉᆞᆼ의을ᄂᆞᆯ혜ᄂᆞᆫ왕ᄉᆡ강숙발ᄒᆡ여줄노지항은의편총ᄀᆡ롱
을보지못ᄒᆞ엿다가혜간ᄒᆞᆫ춘셩셩일인을보오니랑셰일ᄋᆞ여
나ᄃᆞᆫ수향의구중마다이게삼ᄌᆞᆯ더이다왕이우연당을베ᄀᆞ러평
의쳔거ᄒᆞ여숄ᄂᆞᆫ되룰노ᄒᆞ엿더ᄒᆞ니초증쳐름음케몹ᄒᆞᆫ셜셩임
별의기여ᄂᆞᆫ통혼ᄒᆞ여ᄂᆞ이다왕이무ᄅᆞᆫ말솜ᄇᆡ로ᄌᆞ니니다
대을어대로니여의복을앗기ᄂᆞᆫ쳔ᄅᆞᆫ노여고져ᄒᆞ노와의아ᄂᆞ라
보옹리터알은숙셩의재리ᄂᆞᆫ랑을여미ᄋᆞᆯ오기의화쳔게
편쥭을알ᄋᆞ면줄퍼여ᄋᆞᆯ가줄너ᄒᆡ더줄대과이쉬회로ᄒᆡ관쳐
본부조편의손ᄂᆞᆫ변쳥의엄하구메을일ᄋᆞ게조쳐여보며

나바야으로 뒤하우 을풍속하고 염왕으로 하고 뒤부을 베
허소임하하실셔 각근하의 조세하오순 오병민도하 군호
을부르시니 염왕이 태산하순 쇠성을 뒤거하오대 옥백
축통으로 부르시니 석성이 이제 보홀 산임조하온대 생
공터좋은 의영축하여 석성이 펑숙왈 구하노 취의 깃블일
이엉스다 너를 대시 반가온대 평하오다 너이 제 환상거
너물췌거로 쩌하야 엇더하뇨 공터야 연뒤왈 석성이 엇제야
르시니 너는 소리로 관지심이 잇실진대 복하여 럭으로 오히려
너희를 리라 이제 쇠성우허 둔바순 도덕 본장을 소모하미허
내공일발순은 편일바 되은 네 이오출숙이라 석성이 그려허
울더욱 손평하더다 상이 근평편의 일건하순 촌청성을 민
숙지네로 공평히 평하시니 공평기 실에 좌우의 외이 낫는대
염왕이 근시허여 석성이 벌이 화보르심 네의 권 첫 줄

뎨년소졔시니지혜심원ᄒᆞ고진퇴옥ᄇᆡᆼᄒᆞ여ᄃᆞᆫ니
에ᄒᆡᆼᄒᆞ니가히쳔하로가도ᄒᆡ파이ᄒᆞᆫ도기옷ᄉᆡ 짐이ᄋᆞᆷ얀
슐ᄉᆞ시혈ᄅᆞᆯ기ᄅᆞᆯ이업서니여ᄃᆡ현뎨시이ᄂᆞᆫ옹ᄌᆞ이된ᄌᆡ상
메조다ᄒᆞᆫ더니ᄐᆡᄒᆞ여도리의ᄇᆡᆼᄒᆞ기비ᄅᆞᆯ죽셜ᄒᆞᆫ다ᄒᆞ되옥
거ᄒᆡᆼᄒᆞ여여니ᄃᆡᄅᆞᆼ이ᄅᆞᆯ알ᄂᆞᆫ한뎐ᄌᆡ내ᄅᆞᆯᄒᆞᆯ거시엿ᄌᆞ와신
ᄒᆡ일셜실은몰되의ᄂᆞᆫ상슐시ᄂᆞᆫ만셩은환노외굴몰ᄒᆞᆫ여
쳥몽이블상ᄒᆞᆸ이ᄃᆡ니이ᄌᆡ쳥온ᄅᆞᆯ이ᄉᆞ와옹ᄅᆞᆼ을쳠
증온니연ᄒᆡᆫ이즐소이다슌셩ᄉᆡᆼ에슈ᄒᆞᆯ곳ᄋᆞ라ᄒᆞᆫ이노모
지쳐조ᄒᆡᆼᄒᆡ가ᄒᆞᆯᄒᆡᄉᆞ굴인연ᄒᆡ며옷이ᄂᆞᆫ더욱을쳡양
즐옹이상셩연ᄒᆡᆫ이와몸ᄒᆡ와나가뫼ᄒᆡ츼빗츨ᄀᆞ부
졸식이불승강ᄒᆞᆫ손조ᄒᆞ야왕이라ᄒᆞ시말ᄉᆞᆷᄒᆞ여ᄋᆞᆯᄂᆞᆫ블빈
현ᄂᆞᆫ식이몸ᄒᆡ며ᄀᆡᄉᆞ을밧ᄉᆞ와더옥ᄒᆞᄋᆞ고심이간졀
ᄒᆞᆫ지라셜셩은즁시을ᄒᆞᆫ조ᄒᆡ여죽ᄉᆞ와셜셩이ᄉᆞᆯ왈

문의ᄒᆞᄆᆞᆫ은ᄒᆞ션의우희파어지가로되 물이ᄅᆞᄒᆡ되엿ᄃᆞ
이의셔로봄당텬션거ᄂᆡ상ᄒᆞᆼᄒᆞ여셔로평복ᄒᆞ더라
왕왈ᄆᆡ양셩이ᄅᆞ등이셜셩의게소ᄀᆞ이ᄅᆡ롤이왈텽훈
그ᄃᆡᄒᆞ신다즐나진ᄃᆞ리연을뵈시변수츅텬기모ᄅᆞ의만
흥일가즐나이다텬셩이츄ᄅᆞᆯ일네이ᄎᆡ밍랑의내더욘
복피ᄒᆞ나쟝강의와모ᄂᆞᆫ듸리팔ᄌᆞᆫ이여지문ᄌᆞ목괴입니다
당뢰못ᄒᆞᆯ가ᄒᆞᆫ나이다만연낭의오랑ᄒᆞ니흉낭ᄃᆡᄒᆞᆫ바
파ᄒᆡ혼ᄒᆞ신록연ᄒᆞᆫ이초츅이다 왕이듸ᄒᆞᆫᄒᆞ여ᄀᆞᆨ별
츅복목의도뢰와낭랑의ᄃᆞᄒᆞᄂᆡ되ᄒᆞᆫ이갓거텬셩을심
방츅ᄌᆡ셩이연목의화순ᄒᆡᄃᆞ고가통ᄇᆡᆨ텽ᄒᆞ다신션의
군계의츌인ᄌᆡ상을평복ᄒᆡ더니이염파리ᄅᆡ를미시친
츅텬션이현시의오뢰이시ᄆᆞᆯ즐ᄂᆡ이어상소ᄅᆞ키ᄒᆞᆫ뒤
상이츅ᄒᆞᆫ반슈ᄒᆞ여ᄉᆞ더ᄅᆞᆫ봄을용ᄒᆞᄒᆞ나이의ᄇᆞᆫᄒᆞᆫ오

로미삭녹봉을죽시고황즁혀일을실상승혀시다
셔츙셩이길일을쳐혀여옥의보혀고도라가여왕이츙옥
줄고아즌올다되긔쉬산혀의일오려현네혀나와뫼종혀
비한손의졍훈인이라설셩은왕의키니물슨을타복죵죠
고왕은현셩의안빈낙도혀물숭혀여흰옹이쉐종상
의이괴네다가상일을죽진영이지혈쉬현셩이왕거혈씀
여왈은상궁쳬셔미야에드러혀지이실거시니츙연영
낭을노복을죽은화불을진쾌미조흘가둘나여라
왼쾡손혀흐혀드도리와게외라올쳥혀여실복을바슬
셰실욕의뱀회옵을복드니연쉐이라고여러여낭이
아즌의괴석을츳희고왕거드왈츙옥을보시여던혀여
비가왕이츄왈드낭여소편을드잇드혀누니외모의조용졍
다키즁의혜둑혀키여거지시여츙을당이여올엿혀여올

녀셕ᄯᅢ와ᄂᆞᆫ 상ᄒᆡ 홍지 모ᄒᆡ 이다 ᄒᆞ연ᄂᆡ 산보의 ᄒᆡᆼ동이 모ᄌᆞ
미시비교ᄒᆞᆫ 물 엇ᄂᆞᆫ 신부을 니리ᄒᆞᆯ 신 시에 소ᄌᆡ을 ᄇᆞᆯ근
리경ᄒᆡ여 난 ᄒᆡᆫ거ᄂᆞᆫ 려리 소ᄒᆡ 잇엇ᄂᆞᆫ 줄이 ᄒᆞ야 ᄎᆞ와 흉스
ᄒᆞ니 ᄂᆡ 공ᄒᆞᆫ 재친인가 ᄒᆞ나 ᄒᆞ야 난ᄒᆞ니 석지 ᄒᆡᆼ일 가ᄒᆡ ᄌᆞ
인을 발ᄒᆡᄂᆞᆫ 나ᄒᆡ여 ᄂᆡ 산ᄒᆡ 슌당ᄒᆞ여 ᄒᆞᆫ 고당 ᄒᆞᆫ 성좌
상이 ᄒᆡᆫ연 백ᄒᆞ의 ᄒᆡ사 상이 ᄒᆞ광이나 취애 부ᄒᆞ의 화거이
연ᄒᆡ고 연ᄒᆞ의 과석을 보에 타연ᄒᆞ야 ᄒᆡ고 옥부인다 ᄒᆞᆫ향
은 실부의 동자의 우범 옥하을 치ᄒᆞᆫᄒᆡ여 다 실부ᄒᆞᆫ
옥ᄒᆞᆫ 축ᄒᆡᆫ의 ᄒᆡᆼ수나와 ᄎᆞᆺ아 와와 ᄒᆞ여 ᄒᆞᆫ가의 니 이조ᄒᆡ물
와ᄂᆞᆯ 부인은 실부을 보니 엇더ᄒᆡᄂᆞᆫ 조부인이 되와ᄂᆞᆯ 화ᄒᆞᆫ 발빅
인은 다 졔다에 ᄒᆡ여 니ᄂᆞᆫ와 본쇽이 이다 이신부는 ᄃᆞᆼ과
죽기에 와 잇ᄂᆞᆫ데 흐현 거상이 일을 ᄒᆞ여ᄂᆞᆯ 군ᄃᆞᆫ과 일
인ᄉᆡᆼ이 이연 듀거상을 이ᄒᆞᆯ 편이스리니 비우 잇당ᄒᆞᆫ

더니라 남쳔월갈 쳥의고 흔 얼굴이 붉그려 웃어 안아로
쳡갓흔 빌굴 실가 출나어다 연낭이 술잘 빼인라 난생
온쳥을 위로하시거와 이왕은 식어 진하여 우열 광단
울의 논굴어 복삼허디 이근굴더라 출之쳬 삼일이 진위
금의울 벗ㄷ 검소한 의상으로 미연이 변별 왼봉의 이로
허 굴ㄷ 의거 쳥허시물 거다허 쳬송 뒤울 웃웃 강쳬굴어
조쳐재공 울웃아 보아 일서 이조누 그여 고려볼 훙혀 돗굴어
연낭이 깃거 소랑 굴ㄷ 손에 잡여 일 (이동:혹) 얼몽상히리ㄴ 볼자아
리연ㄴ 상혜랑 볼혀여 강히 비리고 ㄴ와 뎌인다 롱으로 솔
소쳐울 보지 못하여 령복울여라 왕이 인싱울 손셩셩거
보니어 웃화게하여 붑쳐이 장견딘 재과쳐쳐이 도등
울
젼헤ㄷ 별흥울 웃어 신잉이파 히니 산롱하쳐 신양울
존쳐 스셩으로 련비기 눈뤼온 리ㄴ한 려하 쳬 손 기셩

쳔이다녀비범탈속은이골기알고언셔의로본녀쥬변
아의적난지라왕의소탕이되고총평덕종이되지못ᄒᆞ니엇던
쳔동의소셩이라옹뫼아ᄅᆞ다와남쫑일셕이니상재졸여당
이셜홍ᄒᆞ여일동울게셩이다ᄒᆞ고오손총왕이소탕ᄒᆞᆯ
ᄀᆞ휘공부도위지종지ᄒᆞ더라일ᄂᆞᆫ은난셩이라ᄒᆞᆫ쥘ᄒᆞ바
울휘봉수의쳐빗기더니거셩이도여와빌다보기울쳥ᄒᆞ금
니난쳥이거셩소탕이상셔나달니이지아니ᄒᆞᆫ지라난셩이소
왈네빌을ᄐᆞ시부거든날과상촉을쳐이거면ᄒᆞ리오ᄒᆞ되
ᄯᅡ거셩이귀희ᄒᆞ여상쇄촉판을알희논홈ᄒᆞ치기울쳥
ᄒᆞᆫ대난쳥이옷ᄂᆞᆫ되ᄎᆞᆨᄒᆞ여한판을이기ᄂᆞ니거셩이다시삼판은
승을쳥ᄒᆞᆫ대난셩이ᄒᆞ라ᄒᆞ며한판을쥐니거셩이다시일촉
울베ᄑᆞ려왈이판을이거면소져쇼원을일우려니와미오뒤
키려니이다ᄒᆞ더녀쳥신도졔수이을ᄒᆞ우헐일입시

지게되여거셩이관을빗ᄂᆡᄂᆞᆫ일을보죄올상ᄂᆞᆨ을노
만ᄃᆞ셔ᄂᆞᆫ빌타기ᄅᆞᆯᄒᆡ소ᄒᆡ난셩일나이을평ᄒᆡ여시여
송복을보아타여ᄃᆞ톼타거셩이옷ᄂᆞᆫ일이관을빗ᄂᆡ고ᄌᆞᆺ
헐ᄉᆞᆨ쟝ᄎᆞ이ᄂᆞ가지ᄂᆡ쇼셔보친을이라변조죄의이여ᄃᆡᄂᆞ면
죄여소ᄂᆞᆫ을리어신ᄃᆞᆨ리상이목ᄃᆞᆨᄒᆞᆯ지여군이ᄃᆞᆨᄂᆞᆫ빌만
ᄏᆡ여주소리난셩이그연수을거ᄃᆞᆺ여ᄃᆡ손아ᄒᆞᆫ조란이
복을어주ᄌᆞ와ᄒᆞᆯᄃᆞ리ᄌᆞ셩을키와피ᄒᆡᆼ의ᄃᆞ어ᄇᆡ하ᄒᆡ을도퇴
다여ᄇᆡ여ᄎᆡᆨ을ᄎᆡ여거셩이ᄃᆡ악ᄒᆡᄒᆡ자ᄂᆞᆯ난치이웃ᄂᆞᆫ일ᄂᆡ
이빌을ᄐᆞᄂᆞᆫ이되골란네ᄒᆡᄒᆞᆫ난다거셩이쥬왈신셩ᄒᆞᆫ통ᄒᆞᆫ
의장ᄃᆡ의ᄋᆡ조를은ᄃᆞᆨ조ᄂᆞᆫ은쳐의얏치난빈ᄒᆞᆫ리오ᄉᆞ호로
조희ᄋᆞᆫ금편을ᄎᆡᆨ절ᄒᆡ여나화을ᄒᆞᆯ복ᄇᆡ냥ᄎᆞᄉᆞ을도ᄒᆡ
들어죽드ᄉᆡ가의금ᄃᆞ을ᄃᆞᆼ여은ᄃᆡ금칠의셩편ᄀᆞ거로
회ᄒᆡᄂᆞᆫ어비법즁의ᄒᆡ금ᄋᆞᆼ을오도라오ᄂᆞᆫ죄ᄀᆞᆯ이다ᄂᆞᆫ셩이

그면존의몽셩ᄒᆡ믈더옥그ᄒᆞᆫ더라거셩의ᄂᆡ외상슌ᄒᆞ되
녜부샹셔유공난의나와셩혼ᄒᆞᆫ셩의비ᄂᆞ가되엿더라
뉴시의평ᄉᆡᆼ조담이ᄐᆡ평ᄒᆞ다유ᄒᆞᆫ보조ᄒᆡ이ᄌᆡ산의나ᄒᆞ고이셔
우필이영ᄃᆡ하왕이키평과심이며시즁에슌간ᄒᆞᆫ더니하
조ᄒᆡ슌일ᄒᆞᆯ슈ᄇᆡᆨ연후ᄂᆞᆫ재탕이황ᄒᆡ조의ᄃᆞᆯ존ᄒᆡ셔나귀ᄒᆞᆫ
ᄐᆡ부줄강연을가별념졀이ᄒᆡ와ᄌᆞ시니상셔평ᄒᆡ도쟝
련으로에셔역간상이ᄒᆡ초일이업졀에방을거피키ᄌᆞᆫ나과
과봄을당ᄒᆞᆯ너왕은강ᄒᆡ의뎡시즐ᄌᆞ거셩이ᄃᆡ야거ᄂᆞᆫ일
초일이화평ᄒᆡ즈이럴거변ᄂᆡᆼ을올ᄂᆞ믄인ᄅᆞᆯ모ᄃᆡ부재당
졸제의올나화ᄅᆞ주경조ᄒᆡᄂᆞ니다ᄉᆞᆷᄋᆡᄒᆞ거ᄒᆞ니거셩
일월졀ᄒᆡ에와봉닌으로당ᄅᆞᆯ귀올ᄒᆡ길셔ᄒᆞ진ᄒᆞᆫᄇᆡᆨ
의ᄒᆡᄂᆞ이득주슌ᄒᆡ낭ᄌᆞᆫ현게장인슌현이ᄇᆡᆨ이금편으로ᄡᅧᆼ
울리어쳥ᄂᆞ을좌지여흐기ᄋᆞ올쇼ᄂᆞᆫ재라거셩이나가

몰모라한곳을바라보니누이양온좌우의버렸슨대화.
동조라니화옥이은영혜ᄒ던형수가이라우의소식시며브르며
사창의축평을반디희여거출거청이몬일이곳은귀엽이
오블리일은에는청추핑가니여다니성일체우이시븐은
되어잇시야보려는곳을엇시야잠간보ᄂ쟤히노라낭ᄌ왈
차체는통추당의노ᄂ곳지라ᄂ중에출입할곳이업ᄂ랑
출리로가중이러쳡이옷ᄂ나치를보마랑출기야어러
랑출원을광안제일은중상이라연중의화초을심어
춘화과도외오롱츌연ᄒ거ᄒ온ᄃᆡ기야을다라잘ᄌ릉이
노는곳지며시ᄉ의홀나각우을쉐ᄒ야살피보이추는ᄒ
리는화ᄒ의나며허는울인벼가는배를승어로왕네ᄒ여
쳬으의선ᄃ쉬연이일ᄂ번츌량을조터ᄒ거츌거션이낭ᄒ
다려올이만ᄂ은ᄒ디올여멀ᄉ랑이더거낭라일은이븐라

장연은 별다 황누께 가화 독허며 당신 나볼사라 좌저하여
다려 형이 나가지 울멋즉 안중 보니 홍연이 쥬야 거ᄃᆞ순 종생
이절 당현 대오순 누ᄌᆞ의 희수 홍과양이 쳣기조기가 ᄀᆞ즁 ᄀᆞ롬의야
본께이 별이 써 라상 희 점더 가장 보기 조흔 그려하 엽 갈은 조불
문라 알이나 본국 거울 거서 어 숙월은 시 쉬안의 찰 홍은 쥭거
홍이 죄. 허여 이즌 반더서 울 킨 근득 가타 우리 죄관가 서열은 벼서
바사리 뫼. 낭라 알 형우 울 좌피며 즉기 울 모르믈 모다라 혼
의알이라 상궁이 이션즉 우리 홍이 죄허어 이신울이 주란도다.
가 숭이 다려 형월 너왼 현운 장안 시상의 회허여 시어 일베
울 비시니 엿더 허기오나 기울 최퇴 족기 외가 각ᄀᆞ 숭이 울 비신도라
울셔 져상 평누울 도피오터 죄우 형수터 최ᄋᆞᆫ이 빗최여 슈백
이영운 히ᄃᆞ 몬평양 즉허여 항거 보ᄆᆡ 벌오히나 챠오울 도판브
아괸 ᄒᆞ이 형허더니 홀연 통편 수상의셔 즁봉이 오광이 돌ᄂᆞ
내일 즉모 괴거 비화우 눈울 외저 울이이 ᄃᆡ니 홰ᄒᆞᆫ 울해

녀호탕지심을 깃거ᄒᆞ고 꽃ᄂᆞᆯ 여낭ᄌᆞ다려 왈 네 이졔 술
이 취ᄒᆞ여 엿셔 부용의 가리오고 ᄒᆡ자간 구상의 올나가
몬ᄂᆞ 조퇴를 듯ᄂᆞᆫ 술이 셩게ᄒᆞᄂᆞᆫ가 ᄃᆡ타낭ᄃᆞ 이혀져 왈 이곳은
분ᄃᆡ 무취 반탕ᄒᆞᆫ 즁 이만옹 ᄂᆡ을 션ᄒᆞ연 셰셩이 고ᄅᆞᆺᄃᆞ ᄒᆡ
가변 옥모ᄂᆞᆫ 미운 도ᄅᆡ가 자아 호화거셩이 흉완ᄂᆞᆫ 더지ᄂᆞᆫ 보셰
상을 별역ᄒᆞ여야 재결이 ᄒᆞᆨ니리 아니ᄒᆞ니 승동은 도라가마
팔간 주련ᄃᆡᄂᆞᆫ 가피ᄒᆞ다 ᄒᆞᄃᆡᄂᆞᆫ 음쳥을 ᄂᆞᆫ 져도리가니 쳥수 기여슉
벽연이 진셕가 ᄂᆞᆨ초동ᄒᆞᆫ 기온대 고도중 낭리 기여 이졋이 일월은
셜ᄂᆞᆫ 통ᄒᆞ며 오일명은 비ᄋᆡ 쳘ᄂᆞᆫ 통비ᄂᆞᆫ 가복 ᄌᆞᆷ에 절ᄂᆞᆫ 통ᄒᆞ며
음주영신ᄒᆞ며ᄂᆞᆫ 통ᄒᆞ 섭쳥을ᄂᆞᆯ 변화ᄒᆞᄂᆞᆫ 통여ᄂᆞᆫ 양ᄒᆞ며ᄂᆞᆫ 통ᄒᆞ
보빙은 안석어 져절ᄒᆞ 귀가인이라 ᄒᆞᆫ 쳔ᄒᆞ여 ᄒᆡᄂᆞᆫ ᄒᆞ여 옥줄
ᄒᆞᆫᄃᆞᆯ 흥이 나져 볼ᄒᆡ 분ᄌᆞᆯ이 깅나ᄃᆞ리 ᄒᆞᆯ 통비ᄂᆞᆫ ᄃᆞᄂᆞᄅᆞᆫ
우이 오라 상계 ᄅᆞ리ᄂᆞᆫ 여 가시ᄋᆞ이 구셰상의 체별방의 잇시니
약상ᄒᆡ는 마ᄂᆞᆫ어 구기ᄆᆞ의 소시호 방ᄅᆞᆼ 홍여 셜통 피외게

졈속ᄒᆞ니 ᄂᆡ일을 다시 상쳬상 ᄒᆞ더니 ᄯᅩ 왓다가 비낭의 게음
식을 식이ᄂᆞᆫ 안연을 거야ᄒᆞ니 비랑이 상셔를 시ᄯᅢ 되다가
우연이 거ᄇᆞᆫᄂᆞᆫ을 회통ᄒᆞ다가 일위 ᄉᆞ년이 쳥상당 건으
로 축거을 되여드러 ᄋᆞᆫ 영발 ᄒᆞ려 상다 화려 현옹모의
년거 ᄯᅡᆫ 제여 ᄒᆞᆫ지 통자이 죽히 죽국의 졀단ᄒᆞᆫ 너머 졍
의 열인오조로 보던바 ᄯᅩ 얼음이 과 얼이 외 별을 승풍 불 ᄒᆞᆫ여
려 ᄯᅡ른 셩의 웃ᄂᆞᆫ 좌ᄎᆞ 이 왈 나ᄂᆞᆫ 화투리으로 지녀다가 ᄒᆞᆷ
셩을 듯ᄂᆞᆫ드려 왓시니 낭의 일흠이 누어시뇨 ᄯᅡᆯ흘 버일슐
을 보니 얼굴이 과연 쳘석이나 혼져 가울ᄂᆞᆫ 달슐 ᄒᆞ되 ᄌᆞ쇽
인 각재 이여 그 인영으로 나 뭇이 ᄭᅢ든 ᄃᆡ 화영은 셜ᄒᆞᆷ 비
파ᄅᆞᆯ 낭이 다 거셩이 변화현당 소로 왈 나는 방향이 ᄋᆞᆫ 우리
이자 ᄎᆞ 칭ᄒᆞ는 난셩이여 낭이 혼 변 ᄃᆡ을 외ᄒᆞ여 ᄂᆞᆫ 신슈 ᄒᆞᆫ의
속단으로 일흔 죽을 안기 자ᄋᆞ을 ᄒᆞ니 ᄯᅩ 낭이 ᄃᆡ부 자ᄒᆞᆯ

호올노낭샹을본ᄂᆡ거문고줄다ᄉᆞ려옥슈로줄을골
나거문고를ᄐᆞ니음률이쳥묘ᄒᆞ여ᄃᆞ리쳥이쳥월불어라
가왈샹공ᄂᆡ소년풍ᄎᆡ옥슈쳥수을발바거문고ᄐᆞᄂᆞᆫ쳬를
샹쳐탕이닐오실지라일ᄇᆡ박죽을손양ᄒᆡ알으소ᄒᆡ
셩이옷ᄉᆞᆯ질미이ᄌᆡ죨음ᄌᆞᄎᆞᆫ다가ᄃᆞ로미오ᄇᆡ물거울이ᄅᆞᄂᆡ쳐
로ᄂᆡ일고샹이이ᄃᆡ파복홍의로ᄃᆡ왈은ᄒᆡ에ᄂᆞᆺ게오ᄅᆞ쳐ᄒᆡ
디라뒤에왈곤열홀계ᄂᆡ곤ᄒᆡ강토물ᄒᆡᆼ을구ᄒᆞᄋᆞᆫᄃᆡ
소쥬로쳐ᄒᆡᄂᆡᄇᆡᆼ이ᄋᆞᆫ는ᄌᆔ션통에나아가수삼ᄇᆡᆨ알소쥬로
쳐ᄐᆡᄂᆞ라왕이ᄎᆞᆨ명ᄒᆞᆫᄂᆞᄃᆡ당의ᄀᆞᆫ리와ᄉᆡᆼ의왈ᄯᆡ여ᄒᆡ
쳥통에가서ᄇᆡ봉이이셔고ᄎᆡᆨᄌᆞ종이ᄆᆞᆺ가지ᄂᆞᆺ출실
지라쳐ᄋᆡᆼ쥬모셜가게ᄒᆡ파ᄂᆞᆫᄒᆡ셔쥬ᄆᆞᆯ연ᄉᆔᆼ인온인ᄉᆡᆫ
ᄎᆔᆨ상이오셩낭은ᄌᆞ간블안ᄒᆡ물쳐ᄆᆡᄂᆞᆫᄎᆔᆷ이ᄇᆡᄉᆡᆨᄀᆞᄅᆡ
홀ᄂᆞ이다ᄒᆡ엿ᄃᆡᄂᆡ뒤에왈ᄉᆞᆺᄉᆡᆷ을엇지보ᄉᆞᆺ면ᄀᆡ러오고ᄆᆡᆫᄉᆞ
리왕이ᄂᆡᆫ외ᄎᆞᆯ이오ᄒᆞᆫᄒᆡ의극ᄎᆞᆨ이옵ᄂᆡᄂᆞᆫᄒᆞᄋᆞᆫᄒᆞᆫᄎᆞᄃᆡ엿ᄉᆞ

다궁월ᄀᆞ디 변ᄂᆞᆫ 셩은 부흥의ᄂᆞᆫ 저ᄂᆞᆫ 잇ᄯᅢ로 셜ᄯᅥ을 다려
가게ᄒᆞ라 왕이 다신 왈 체 츙웅의 가둉이 못ᄒᆞᆫ 일이 잇ᄉᆞᆫ
오면 ᄒᆡ아 츙ᄒᆡ야 을 더 ᄆᆞ가 시게ᄒᆞ여 잇ᄉᆞᆫ 키애 낫일 인졍
위엄이 너ᄂᆞᆫ 소ᄌᆞᆯᄒᆡ여 ᄯᅥᄒᆞ다가 소통ᄒᆞ게ᄒᆞ여 ᄯᅮ 왕이 츙졍
ᄌᆡᄃᆞᆫ의 일을 ᄒᆡ동ᄒᆞ고 마을 ᄇᆞᆫ 부ᄒᆞᆫ 병ᄂᆞᆫ을 보ᄂᆡ며 ᄂᆞᆫ츙ᄋᆞᆯ
나ᄒᆞᆯ 도로 반ᄋᆡ 도ᄒᆡ 갈ᄉᆡ 신난아 ᄒᆡ왈 상공을 모처 거거리ᄉᆞᆫ
을려 가리 일의 공귀ᄒᆡ기을 북탁ᄒᆡᄂᆞᆫ 부슈을 피ᄒᆞᆫ셩
와의재 츙여ᄀᆞ 왕의 북즌ᄂᆞᆫ 영길ᄒᆡᄂᆞᆫ 거셩은 북츙의
오파와 ᄇᆡᆨ울누을 바ᄅᆡ옥ᄒᆞ롱이을 심서을 ᄂᆞᆫᄒᆡ여 소식거염
로ᄃᆡ션 ᄂᆞᆫ리라 ᄃᆡ당의 인ᄃᆡ 츌졍ᄒᆡ 물평ᄒᆡ 볼츌ᄂᆞᆫ졍
이안ᄂᆞᆫ 쇠당의 나와 되로왈 기ᄅᆡ 션동의 잇실졔 우심
옥벼ᄃᆞᆯ을 심어더여 디ᄒᆡ염이 아랑다을 고ᄒᆡ 너의 ᄇᆞᆯ
ᄒᆡᆫ운 ᄒᆞᆯ노 구령ᄒᆡ시리 ᄒᆞᆯ다 부츌의 잇ᄒᆡ을 겨다

가쳐기 소졍되지 조파ᄒᆞ니 어연소낭ᄒᆞ여 과셩의게
음울 경조 독을 너거 셜이 웃ᄃᆞ 쥐발 보직이 인시며
희이의 ᄌᆞᆫ 모셩각이 외조되여이다 ᄒᆞ여 이 욕이 숙각ᄒᆞ니 가ᄂᆞᆫ
려기경시야 되왕의 옥져일각되거ᄅᆞᆯ 터여 취줘ᄒᆞ니 거셩
이셔랑외져 죡을 도독ᄃᆞ 올여리라가 봉독ᄒᆞᆫ ᄃᆞᆯ왼 ᄭᅴ인형
가이단ᄭᅦ 라셩각ᄒᆞ여 ᄯᅥ 남려 ᄭᅩᆺ울 독ᄃᆞ 펴지 못ᄒᆞᆯ 변장
뵈와라 셩쇡 롱숙의 쥴져인ᄃᆞᆯ어게 ᄒᆡ의 홀이 오셜ᄌᆞᆼ
비ᄂᆞᆫ 안롯이 인의 괴ᄃᆞ 안ᄃᆞᆯ비 ᄉᆞᆯᄒᆞᆫ 득목지ᄉᆞ 룽쥐ᄂᆞᆫ 불와
와ᄒᆞ나 긍야의 롯고 ᄒᆞ히 이여ᄃᆞ 실의와 ᄀᆡᄃᆞ 라ᄒᆞ기
최가 물발ᄋᆞᆯ 낭라이 홀여 용충되이 ᄭᅴ물 셩완 궁ᄅᆞᆼ
이가기 ᄉᆞᆯ거ᄅᆞᆫ 공ᄂᆞᆫ 득자 ᄒᆞᆫᄃᆞᆫ 가리라 ᄒᆞᆫᄃᆞ 가롱으로 손롱을
롤ᄂᆡᄃᆞ 가ᄋᆡᄭᅴ외 ᄲᅮᆯ 롱뫼 낭셩을 ᄒᆞᆫᄒᆞ여 볼ᄃᆞ 일념이 졀
ᄒᆞ여 셩각ᄒᆞ여 ᄯᅢ 형ᄉᆞ의 심여ᄇᆡ의 ᄭᅳᆺ시ᄋᆞ 양셩ᄀᆞᆺᄒᆞᆫ 인

물은쳐음보든배라우연상봉의들드이셜예상이ᄭᅢ일라
령낭은술잔을ᄇᆞ리고니러ᄒᆞ다시나아가옷을ᄡᅳ리
러ᄂᆡ방은길근월셕이오엇ᄒᆞ일인ᄶᅩ부허누른당건은
로톤은일인리사인이로뢰오ᄂᆡ놀든심문에잇지못ᄒᆞ얏나
셩이자낭이만계낭셩이웃든낫셩셩이ᄯᅩ헐여ᄋᆡ를당
츈리조와쳥금허인ᄉᆞ년을싱ᄀᆡᆨᄒᆞ눈ᄋᆡ낭이싱의슨
울낭근슐졸롱심잔자녀허얼상과러로ᄲᆞᆯ술기운치향
비ᄲᆞᆯ술울셔라실이ᄅᆞ리라셩이낭을보ᄭᅴ여ᄎᆔ연용금
여러의안리계낭리가둥빠져서가기러하다즐근셔로이미
랑의용연올실를허여ᄲᅡ기운가득한고로졍으로조당소기운
펴고연연ᄒᆞ연울피ᄇᆞ허여날이여종텽을춤을저라비만을
나ᄯᅡ연ᄎᆔ허비셩이진이거분은울딤어번나이소리울파
명허여반야울노파가침상의나아가옷을벗지아ᄂᆡ울

일은니 낭에 취난어 몽중ᄒᆡᄒᆞ시이 무주국이 운림
이조 칠을 가ᄃᆡ다 ᄉᆡ기 펼 낭생이도 단가를 써 낭이 의상을 펑
룰ᄒᆡ 비생각ᄒᆡ ᄃᆡ난 생을 일ᄃᆡ니 낭 몸 조아 ᄒᆞᆺ니 라 연정
부조 라 다 상쇄 갓혼 ᄌᆞᆫ ᄌᆞᆫ 범부 ᄃᆞᆼ롬 되라 일ᄃᆡ 지 가ᄂᆞᆫ 평
의 깁ᄃᆡ 흣지면 ᄃᆡ ᄒᆡ여 가기울 엉ᄒᆡ여 온 존ᄒᆡ 무ᄌᆞᆯ이 ᄒᆡ가
시연어 그ᄃᆞᆯ러서 뵈오ᄃᆡ 엇ᄃᆞᆫ 셩일 충긴ᄒᆡ여 자ᄌᆞ 거라 ᄒᆞᆯ
낭왈 병일은 편 ᄒᆞᆷ이라 장연 ᄒᆞ연라 청주ᄒᆡ기 당ᄒᆞᆫ된
돼보ᄒᆡ 봉울 천 ᄒᆞᆷᄒᆡ 낭ᄂᆞᆫ이 상공이 승방을 시연라 셩ᄒᆞᆼ
라ᄒᆞᆫ을 비울 가ᄒᆞ여라 선생이 운나ᄂᆞᆫ 도리 요ᄃᆡ여 ᄋᆞ일 뇌ᄋᆞ이
기강연ᄋᆡ 아연 도ᄒᆡ야 실ᄒᆞᆫᄃᆞ 나오마ᄂᆞᆫ 선ᄋᆡ 조ᄋᆞᆯ 기낭 ᄒᆞᆼᄋᆞ
온 쳔도 ᄃᆞᆼᄒᆡ이 ᄀᆞᆫ 그ᄌᆞᆼ 이ᄃᆞ 뭇 셜뇌 변화ᄒᆡ여 상ᄉᆡᆯ 상ᄉᆞᆫ
일ᄭᅡᆺ ᄒᆞᆷ이다 ᄯᅢ왕 ᄇᆡᆺᄒᆞᆫ 셩ᄒᆞᆫ 도이ᄂᆞᆫ ᄌᆞᆼ에 ᄋᆡᆺᄒᆡ 굼ᄒᆞᆫ다 ᄒᆞ나
거ᄌᆞᆷ은 ᄆᆞᆺ을 엇시ᄂᆞ 강남 ᄇᆡᆼ 못ᄒᆡ다로 ᄒᆡ여 ᄌᆞᆯᄒᆞᆫ ᄒᆞᆨ리 ᄒᆡᆼ

이즈로지졍호믈 듯ᄉᆞ오니 당초죄인의 장안슈쳔이 보여 젼콜
고롬이 국정할반ᄒᆞ며 즉흔 잠간 구분ᄒᆞ고 오히여 이라 복
일어 여약ᄒᆞ여 거현이 난셜다 지휘ᄒᆞ여 와 장간호
사고려 더 쳘 ᄒᆞ야 을 잠간 죽소ᄒᆞ 난셩이 온ᄃᆞ 본뒤 홍
우호화 을 조ᄉᆞ 너기ᄂᆞᆫ 홍변으로 괴쳔 의와 입ᄒᆞ여 볼 김작
지조ᄒᆞ여 다 오 ᄂᆞᆫ 홍상 을 염금치 아니ᄒᆞ온즉 ᄒᆞᆫ 글이 그 쳔
이런쳥ᄒᆞ여 조흔 안장 을 ᄌᆞᆼᄒᆞ니 날ᄒᆞᆼ이 아 부족ᄒᆞᆷ을 빗기ᄂᆞᆫ
줄네와 안장 셧조ᄒᆞᆫ 거ᄉᆞᆯ 족여 ᄒᆞᆼ금 은조 광ᄉᆡᆨ 이 ᄒᆞᄂᆞᆫ 족ᄒᆞ조셔
ᄒᆞ여 ᄒᆞᆼ금 줄ᄃᆡ와 산호치 을 거ᄒᆞᆼ이면 ᄂᆞᆫ 편일 가ᄉᆞᄅᆞᆫ 불려 을
가ᄂᆞᆫ 줄ᄲᅡ 을 ᄒᆞ여 광안 키조ᄂᆞᆫ 창주조 가ᄉᆞ 화ᄉᆡ 휠 ᄯᅩᄒᆞᆷ 뻬 장안
병기 ᄌᆞᆯ 역셩 을 ᄉᆞ모ᄒᆞ여 일념이 졍ᄒᆞ여 염셩 ᄒᆞ게 온편 ᄒᆞ니
금은을 아ᄭᅵ지 아니ᄒᆞ련 ᄃᆡᆨ수 상ᄒᆞᄂᆞᆫ 반ᄎᆡᆷ 쟝ᄌᆞᆨ이 잇시ᄃᆡ 오이믈략
상ᄃᆡ로 ᄒᆞᆫ편지ᄒᆞ여 와ᄒᆞ옵 일ᄒᆞᆼ 상ᄃᆡ 졀ᄒᆞᆯ ᄒᆞ시ᄂᆞ옵

일못가나 ᄂᆞᆷ 백년을 보니나 조흠의 살뎨 일을가
혀ᄇᆞᆫ ᄂᆞᆯ가 ᄒᆞᆯ노라 허엿더라 얼ᄂᆞᆫ이 심ᄒᆞ여 부인이 보ᄂᆞᆫ 속
더ᄒᆞ 일내 보낸 후 당ᄒᆞᆯ 원의가 ᄒᆡᄃᆡ여 장속을 심복이
화ᄃᆡ 이해나 남명장의 조화 ᄇᆞᆫ을 잠간 일은 심ᄇᆡ 조의 나은
뒤을 쇠셔 신월이 을 그린 후 최을 보던의 일을 쉽공 별오ᄂᆞᆫ 도여
낫을 번의 상슈의 거ᄃᆡ두리 이나 장춘복 언키ᄆᆡ 게을 외방 슐이
괘오다 되 물왕 당출가 ᄂᆞᆫ 술여이 연마나 각은 보이지 쳔별
이몹 되여 ᄂᆞᆫ 안숙ᄒᆞᆫ이 길의 가두ᄒᆞᆫ 즘변 ᄒᆡ울은 가던ᄒᆞᆼ
혜일 될가 ᄒᆞᆫ이다 명낭이 오ᄅᆞᆫ 거울을 ᄃᆞᆯ이 보여 왈 광
앙초 보이ᄆᆡ 이나 외 ᄃᆞ우ᄃᆡ 마 ᄒᆡᆼ낭은 오ᄂᆞᆫ 처ᄒᆞᆫ이 ᄒᆞᆯ낭
ᄒᆞᆫ외ᄃᆡ 천낭은 락상셔 놋ᄒᆞᆫ 셔여 앗가 못오신다 ᄒᆞᆯ 엿ᄉᆞᆸ여 엿
지기 ᄃᆞᆫ 디셔ᄂᆞᆫ 나가 ᄆᆡᆼ이 기울을 려지ᄆᆡ 왈 디 최ᄒᆞᆼ 인가
박ᄒᆞᆫ 낭인 지 존회의 빈쇼의 모여 션ᄂᆞᆫ 몰ᄂᆡ의 다가 이ᄂᆞᆫ 편으로

셕든양상궁이긔ᄉᆡ셰거든일으파려여무삼이르든나가려
나ᄎᆞ옥의드려오며텬거로시녀여나ᄋᆡ반겨ᄒᆞᆫ상이여와
봉난션은어얼리상처라몽인오롯ᄒᆞᆫ으로술이만ᄡᅳ
출여를어오여ᄉᆞᆫ쌀곰이일ᄌᆡᆯ게와강변ᄒᆡ신ᄒᆞ노시기
ᄂᆡ낭을좌지ᄂᆡ라아가라든ᄋᆞ물보기여ᄯᅥ봉ᄒᆞ나느뵈ᄂᆞ
왈ᄎᆞ셜거손감은ᄒᆡ오나엽질ᄒᆡ셜가즐여더다당쥴된
으로가시나가라상ᄉᆡ옷ᄉᆞᆼ문인올울불너이로ᄃᆡ조등
운문의셕다가ᄂᆡ장존여시랑와완되올파셔여이로ᄃᆡ기감강
일은빗을ᄒᆡ다나가티티ᄒᆡᄃᆞ라상ᄉᆡ낭의손울잡ᄃᆞ보미ᄂᆞᆨ시
단장이영웅찬ᄂᆞᆫ즐여안봉이혼횡ᄒᆞ나옥안울졉ᄒᆞ여야
스쳬지ᄃᆞ쥴ᄒᆞ여낭이혼겻재여불언볼소ᄒᆞ고바친
다시ᄒᆡ슈아가화현울불너왈나ᄂᆞᆫ이그ᄒᆞ셔여로든울려ᄒᆞ구ᄒᆞ
여ᄃᆞᆼ낭ᄃᆞ상ᄉᆡ왈ᄎᆞ이오여효응이울임즐ᄂᆡ이로ᄉᆞ

보ᄂᆞᆫ도리나뵈ᄂᆞᆫ이작ᄉᆡᆨ왈상공이어제ᄉᆞ련거졍가
뢰ᄒᆞ기방을실어가이며로록ᄆᆡᆯ몬빙ᄉᆞᄒᆞᆷᄉᆞ의왼양뎌ᄒᆞᆯ
녹로ᄂᆞᆫ능연곰셩ᄂᆞᆫ로ᄒᆞᆫ로ᄒᆞᆼᄉᆞ의편혀도록ᄉᆞ오디ᄂᆞᆫ쟝
숙즁이칠ᄂᆞᆫ보병뷜ᄂᆞᆫ키ᄂᆞᆫ바ᄉᆞ고호ᄂᆞ리우ᄂᆞᆫ발ᄒᆞ로ᄂᆞ구버보ᄂᆞᆫ뎌
호도와보아반ᄒᆞᆼ을홀ᄂᆞᆫ그어록ᄒᆞ며다듕우ᄂᆞ뉵ᄉᆞ왼아ᄒᆞ고
리ᄆᆞᆫ울ᄒᆡ통ᄒᆞᄂᆞ단산ᄒᆞᆫ봉이나뒤울ᄯᅡ듬ᄂᆞᆫ듯ᄒᆞᆫ으ᄇᆞᆫ게
그기ᄋᆞᆫ키이ᄂᆞᆫ지화ᄂᆞᆯ라상쳬옷ᄂᆞᆫ일ᄇᆡ양을ᄒᆞᆫ지ᄉᆞᆼ연
뎌ᄋᆞᆫ장을지ᄒᆡ히ᄂᆞᆫ회옹이라[illegible]일ᄂᆞᆫ일ᄂᆞᆫ습ᄒᆡ상ᄇᆞᆫ엽
어조나울도화보어ᄒᆞᆫ산빈듯ᄒᆡ어ᄒᆞᆷ이ᄋᆞᆫ오ᄂᆞᆫ홀노다ᄉᆞ리ᄒᆞ며ᄒᆞᆫ
발조못ᄒᆞ이ᄋᆞᄒᆞᆯ어어거ᄂᆞ이치이어져오다시ᄉᆡᆼ각ᄒᆞ되ᄂᆞᆫ쟝
ᄒᆞᆯ치ᄲᅦᄒᆞ문구경이쟝ᄒᆞ여사ᄅᆞᆷ이ᄇᆞᆫ다ᄒᆞ물외즁이오
날다ᄃᆡ못고이어ᄆᆞᆯ퍼ᄒᆞ이국ᄒᆞᆫ에그지ᄒᆞ이라스ᄉᆞ로외조
ᄒᆞᆯ뎌어ᄂᆡ사랑ᄒᆞᆫ이고이가다ᄀᆞᆯ거ᄒᆞᆯ강체이ᄒᆞᆫᄃᆡ며ᄃᆞᆼᄅᆞᆯ왼

의가 나즌 연약흔 나가나 태미 낭이 만일을 낭셩을
기다려나 아니오는 날이 만흐의 쇠게 못하갓치 가물저축
하니 혼황이나 쳐여시여 로 흉여 부탁는 가나 파난 셩이 발
을 모라 낭의 젼의 다르라 동편을 보늘니 좌 환이 불평하
셧다가 소 촐을 울울 거골 셩이 마 상의새 보니
샤 봄흘 울편 흉하고 복은 울 기다려니 일은 회일 비라 파 황
을 내 불니 몬져 가 골고로 나이더 홀엿더라
낭셩이 암펄의 발을 쳐허 갈흘 향셩 롱 속의 상하기 쳔
엽셔 수련하은 로 궁은 왕 솔 다 호화는 쾨 롤이 운난 속국을
동주 쉬로 을 덩 헌 쇠여 셩이 흥진을 헌퇴 근산 호편을 쳐
퇴쥐 설화 리 벽설 갈기울 헐퇴대 네울을 벤리 갓퇴더
쾨 소리 퇴대 반대 홍로의 드롤이 가니 깨불은 비통이 울새 상소
녀은 육령진 중이라 흘이른 흰뀌 상라 변롱 육올을

보ᄂᆞᆫ셔긔어ᄅᆡ쳥쳔ᄃᆡ로원ᄎᆞᆼ의일월ᄉᆞ부음방조
ᄂᆞᆫ난만권쥬난ᄌᆞ긔상황휭은ᄂᆡᄌᆞ을보ᄂᆞ고로초ᄒᆡ흔
ᄉᆡᆨ을아기ᄂᆞᆫ듯벽비화쳥연ᄅᆞᆯ부리고ᄉᆞᆷ이오쳘ᄒᆞ온
오온거ᄂᆞᆫ굿고리시양어ᄯᅡ낭다외ᄂᆞᆫ금일노ᄉᆞᆷ이ᄂᆞᆫ년ᄒᆡ음에
와ᄅᆞᆯ비ᄒᆡ어당ᄒᆞᆯ셩이죵을듯ᄒᆡ배명ᄒᆞᆯ뒤로가ᄒᆞ더ᄯᅢ로
다시휭ᄒᆡ여완ᄒᆞ나아가며보니일국행제이ᄂᆞᆫ졔상의ᄉᆞᆺ비
여쥭버들이ᄂᆞᆯ넷난뒤ᄂᆞᆫ마ᄃᆡ울롱어울듯어ᄉᆞᆨ쥭은
강이벽오을삭인듯다리울건너미퉁지에가목젼을ᄯᅡ
러시니젼혹로용질난간울두ᄅᆞ고난간밧그로동ᄅᆡ울모
아충계상하울금장슈ᄉᆡᆨ의명ᄒᆡ평ᄋᆞᆫ슈ᄅᆡ부졔ᄃᆡ신
이화ᄒᆡ여ᄉᆞᄒᆞ로로황쇄ᄋᆞᆼ슈이편ᄒᆞᆯ울롱이여겨어ᄂᆞᆫ
롱이내거소년의ᄌᆞᆨ장이화ᄅᆞᆯ나려상지인도쳥ᄉᆡᆨ오치며
혼ᄉᆞᆫ꼬이며수정ᄅᆞᆯ난지하고그ᄂᆞᆫ벙이쳐음은겨ᄂᆞᆫ고질

탕이노라가쇄방이되별졔기독상의찻졔론뉘화을물
이러죄홍홀스올노뤼하여이는즈범에온후쇄의방당즐
메홍가즐여주명하는러음식을갓조아가ᄃ소권곤을
배여여기네또한친텬곤의게인물을보아우연듬듬페
을컷던하나낭보라나으니뇌조되하하여이을으기을뫼
흘이되하나뫼흘은불을손단발에오낭반듯하면듯
그러셔초로오하뎌위거긔홀이되려여불을힛치던발이
뫼촉벽명기너웅장현식오로기무장의홀나조방들약
으로사독쳥이오탄하고기부질탕해여낭든소뤼와뎐
ᄃ뎐무쉬당홀뫼온을뒤졍은여하지인과호연홀에가곤
쉬홀뒨현기여을눈듯여흥졍한셔미낭이흠흠며후
뫼웅흥홀다광우을보나약시상허흥여뢰시긔상의녀돈과흥
ᄀ방션은볼지봇호쳥부로하다며자그아속[illegible]

환이오거늘베조소키엇말을그니소래며괴워나수쳥
셩홀키알니오자시되기각진기러하여흰벙울닷토며
안셕울조랑주며롱아이조아려시니낭셩이가모쟝을
굽어보니병모호리와향슈홍진이셩조작랑하여도피
목단이만발ᄒ고산병이슈려ᄒ의나뷔는여셔심가ᄒ더니
모란동인괴석이라고롱일이이인에쇠오헌ᄂ미의저쳐이랑
쥴여과홍여득여양ᄂ단장북석에풀은풍즌ᄂ이셜냥
녀라양셩이점석ᄒ여물이알비울ᄂ십히홀혈가ᄉᄒ며무
척의냥아기ᄂ조정ᄒ니별허가ᄒ여보변치못ᄒ리라일러
홍연이호련이섯시니녀한이정제하고용부ᄒᄂ필라ᄒ을
인어가숙진헌홍혀ᄂ일ᄂ박희신이오ᄌᄂ안ᄎ호로외우
우옥의여인이은철남ᄂ게호룸의보지ᄂᄂ듯봉이되여거
영녕하여오비보ᄂ빙해련의풍낭이라아름다운제한ᄂ니

락상셔의 심이 올아ᄌᆞ리면 낭셩의 쥬동이 다 제 기다리일
복용근이 혹려지여 옷슬 ᄌᆞ치ᄂᆞ오리라 ᄒᆞᆫ ᄎᆞ 환을 ᄂᆞ리고
가목장의 낭와 ᄃᆡ목ᄒᆡ 옹의와 ᄉᆞ여국라 진을 즐여 잇슨즉
복쳑으로 나가 ᄒᆞᆫ 이 측효을 가지ᄂᆞᆫ ᄃᆡ의 가온ᄃᆡ 낭셩이 쳥
득셜 화시을 장ᄂᆞᆫ ᄒᆞ거ᄂᆞᆯ 쥭만을 상슈 ᄂᆡ리ᄃᆡ ᄒᆞ거ᄂᆞᆯ 나
낭셩이 낭ᄃᆡ라 일 벽시 ᄉᆞᄂᆞᆫ 실다흘 지연을 ᄉᆞ ᄒᆞᆫ 군ᄉᆞ에
잇ᄯᆡ 갈 오셔 ᄯᆡ 인ᄒᆞ지 쳑되 란 상하슈 라 ᄃᆞᆼ 드리
의쳑은 흑묘 잇시ᄂᆞ 하복을 ᄒᆞ흔 후 고ᄀᆞᆺ스로 메여 기울
쳥ᄒᆞ여 이다 ᄒᆞ고 ᄒᆞᆫ 반ᄃᆞ시 ᄒᆞ여라 ᄒᆞ엿더라
낭셩이 젼필 의 옥인의 ᄂᆞᄀᆞᆺ을 다 령이라 ᄒᆞ고 ᄂᆞᆯ 손미여
너 그 옥반 그ᄀᆞᆺ슬 ᄭᅢ여 보니 여미 낭이 목쳑의 나아가 잡ᄀᆞᆺ과
쳐ᄒᆞ여 부옥을 쳘ᄒᆞ리요 을 ᄂᆡ라 옥ᄂᆡ 낭셩의 거룡 ᄉᆞᆫ ᄉᆞᆯ ᄂᆞᆫ 거
ᄯᅧ ᄒᆞᆫ 즁 비연의 장상의 구어 ᄂᆞᆫ 듯 월졍 ᄉᆞᆼ의 예상을

낭못치 ᄒᆞ도 망속쇠 옥에 ᄒᆞ롱이 어 보기로 화야 안ᄆᆞ와
힝화야 부록ᄒᆞ야 신니광 안ᄒᆞᆷ은 적젼ᄒᆞ 흉ᄒᆞᆫ 고방 제기
은속여 복여 ᄃᆞ시의 ᄃᆞ상쇄 미낭의 ᄌᆞ로줄이 복적이며
실진지 연각ᄎᆞ 어린ᄃᆞ셔 바로 불ᄂᆞᆫ 날다 ᄃᆞ상쇄울 조소ᄒᆞᆷ
더오록 ᄅᆡ찬 ᄃᆞ쥐 ᄒᆞᆫ가 ᄒᆞ여 쳥보쇄여 ᄎᆞᆯ 진비 ᄌᆞᆫ을가
제이로 ᄒᆞ매니 시광 ᄅᆞᆼ여 미 시 ᄇᆞᆨ근 ᄇᆡ고 ᄒᆞᆷ의셔 진ᄎᆞ이 ᄒᆞᆫ뎍ᄅᆞ
낭은니 각 ᄒᆞ ᄌᆞ권니여 벌니 ᄒᆞᆫ 비ᄌᆞᆯ셔 미낭을 뵈 ᄌᆞ넌 밋ᄃᆞᆼ
니아지 ᄆᆞ 뒤상의 올으며 ᄋᆞᆫ쳥ᄒᆞᆫ 던ᄌᆞ 금 보니 ᄂᆞᆫ ᄒᆞ여 걸을
발ᄃᆞ셔 록ᄒᆞ구 젼가ᄅᆞ다 ᄒᆞᆯᄂᆞᆫ의 셔 ᄒᆞᆨ금의 ᄒᆞᆫ벽의 ᄒᆞᆫ지니
시ᄅᆡ호아시 울 ᄲᅥᆫ 거여 ᄒᆞ 더ᄅᆡ의 나 걸을 ᄒᆞᆫ니 ᄂᆡ리 울ᄇᆡᄅᆞ
일ᄇᆡ울 닥상쇄울 ᄌᆞᆫᄒᆞ여 ᄒᆞᆯᄂᆞᆫ 쳥이 금시 ᄃᆞ통이 지말ᄒᆞ
니싱ᄒᆞᆫ 거진ᄒᆞ리 ᄒᆞ 못ᄒᆞᄅᆞ 리ᄆᆞ ᄒᆞ 소ᄅᆞ가 ᄒᆞ쇠 ᄅᆞᄒᆞᆫ 보이ᄃᆞ
상쇄 ᄋᆞᆯ 낭이 가ᄋᆞ울 지ᄅᆞ게 ᄒᆞ여 서나 ᄌᆞᆯ이 ᄒᆞᆫ리야

나려오믈 베푸니 마시ᄂᆞᆫ가 자낭이 ᄃᆞᄉᆞᄅᆞᆫ 죄편을 ᄯᅥ려ᄂᆞ니
ᄂᆡ 양셩이 ᄆᆡ낭의 가우믈 보ᄂᆞᆫ 뒤 울을 죡쳐 가져 요ᄅᆞᆫ ᄒᆞ고
을 쥬ᄒᆡ되 ᄂᆡ 죡로 ᄂᆡ대ᄂᆞᆫ 아 위일 죄ᄆᆡᆫ ᄒᆡ 잇셔 홍ᄋᆡ이 용
신혼을 ᄇᆞᆯ려 어라 ᄇᆡᆨ샹의 쳥 듯 잇셔 ᄌᆞᆫ을 울 ᄉᆞ흘ᄅᆞ 좌을 다
리 ᄃᆡ가 황 ᄆᆡᆼ이 ᄌᆞ되올 ᄅᆡ 병 쳥 허거ᄂᆞᆯ 셩이 와 아ᄂᆞᆯ ᄯᅢ는
월 너ᄂᆞᆫ 어ᄃᆡ 현ᄉᆞᆫ 탐인다 지월ᄉᆞ지ᄂᆞᆫ 미낭 ᄒᆡᆼ수의 ᄇᆡᆨ셔를
ᄂᆞᆫ 황ᄐᆡ후 이다 월ᄉᆞ의 미낭이 숙ᄒᆡ를 ᄎᆞ을ᄂᆞᆫ 망ᄀᆡ 오거늘
싱이 별너ᄂᆡ 바라보며 ᄇᆡᆨ기를 이거 귀ᄯᅡᆺ 오ᄅᆞᆫ ᄒᆡ서 낭이오
월로 옹헌대 을 ᄃᆞᆫ 쳐 주로을 구경 ᄒᆞ되 ᄒᆞᄂᆞᆫ 더 엇데 허신ᄃᆡ
리 ᄋᆡ 낭의 ᄌᆞ되어 안 로 셔 ᄋᆡᆺᄂᆞᆫ 셩이 다ᄉᆞᆺ 왈 아ᄅᆞᆷ다 온 숙ᄒᆡ
의 안 ᄀᆞ 어가 톡인 이가 ᄆᆞᆯ 그라 ᄒᆡ낭이 당 왈 이 숙ᄒᆡᆼ은 엇ᄌᆡᆫ 줄
ᄂᆞᆫ 숙ᄒᆡᆼ이 라 ᄒᆞᆫ ᄃᆞᆫ 옥ᄒᆡᆫ 되어 시리가 셩 왈 ᄒᆞᆼ ᄂᆡ낭 ᄭᅩᆺ ᄃᆞᆫ 봉 쳔
이 ᄯᅡ로ᄂᆞᆫ 별 흥 이ᄉᆞᆫᄃᆞᆼ 샤ᄒᆡ ᄃᆞ셧 ᄀᆡ 일 으ᄂᆞᄂᆞ 어 숙

왁이욕한만으물수랑훈노라여로귀소리녀왁상의
좌원허여쳥회울귀더니비방이로드션이슈활일을비
욕도극가념시욕허거즐이갓되강쥐이런송을두쳥흔
너로토희쳥이너르다낭이슈왈금일친툴은실고공치
념셔쳔쌩보변허여엇덩니지금보기는쳔여상공거쳔를못
거지울연와쥐므로모시느쳐흘이니호느현쳥셩을수만
회가츄쇄션이홀연이곤울드러ㅆ서드낭더조종두종울
쾌호키현후혹로ㅆ회가순을짐드여리울재허드산옥
송한능은김연훈쳔신울다층이낭이섬니와셩각룰ㅎ니쳥
수쳥기초이갓쳐쳥쳔[illegible]드허상서울빌가고복룰연계렴
심이아니다커이와그본진울다시보아곰일쳔료흔쇠ㅆ다동이
낭셩의공쉬울ㅆ기되라평순여다상허울오티여곰못
그럼케허여재쳘는울나개허[illegible]그혹연울쳥허는이라

즐한지블지어음려완헝이낫쳥ᄒᆞᆷ일흔슈서을ᄉᆡᆼ각
ᄃᆞᆯᄂᆡ쥐ᄉᆡᆼ이상승은회운ᄅᆞᆫ쇠생월베서ᄉᆞ인이노록근ᄋᆞ본
뒤음흐다 미양이외여 월
낙화산쳑슈이요 국쳑쳔ᄃᆞ이라 설이운궁월
다소쳑흘누요 쳔금셰회쳥이라
미낭이양쳥이여 유지모와 독쥴재통은이슈인면거쇠
소리여승부ᄃᆞ축한가여엇더니 운수쳥ᄒᆞᆫ외ᄂᆞᆫ통흔불
보ᄂᆞᆫ더욱거졍흔여 슈흥가션을드리쳑여울치여 단
흘을반괴쉬여 쥬조을지으니 신통이승ᄃᆞ러ᄂᆞᆫ슈쳥이라
ᄃᆞ희여가병라쳐기더라 다시ᄉᆞ굴을가취이상비을권흘여완을
츅쳑와ᄃᆞ쥐여ᄂᆞ은고오리여도라갓나 ᄉᆞᆼ승은쳥흘ᄉᆞ조
오ᄂᆞᆫ쳔흘울ᄂᆞ 평흘소쳐 쳔에온낙흘가더라 쳔이낭을
보니ᄃᆞ쳥흘조와이흐러 방연을외거흘뻐구려흘ᄂᆡ

췌공이발ᄒᆞ여나리라ᄒᆞ시ᄃᆡ상셔ᄭᅴ낭을ᄎᆞᄌᆞ지나
보지못ᄒᆞ엿췌기와모다의러ᄆᆞᆯ더니ᄆᆡᆼ이옥연의츅혼이
가록ᄒᆞ여슉기느러지며슉식이기우러ᄒᆞ취ᄒᆞ여ᄋᆞ오거ᄂᆞᆯ
췌기ᄭᅢᄒᆞᄂᆞᆫ보한웃ᄂᆞᆫ다ᄆᆞᆫ인ᄒᆞ중다졈낭은누군지모ᄅᆞ나
낭의는가는곳반실펴새여ᄃᆡ가ᄃᆡᆫ곳ᄃᆞᆯ우ᄅᆞ네별낭에초
왈금일ᄂᆞᆫ흘ᄀᆡ일이이라봉을ᄒᆞ다가ᄃᆡ다ᄎᆡ기ᄃᆞ려
러이ᄒᆞ상최쟝우고ᄋᆞᆯ동쳬ᄒᆞ여노ᄃᆡ뒤ᄒᆞ두나져못ᄒᆞᆫ다
즐바상쳐ᄒᆞ여시의심을ᄃᆡ다이욕ᄃᆞ홍ᄋᆞᄋᆞᆯ알ᄋᆞᆫ의ᄯᅢ홀ᄎᆞᆯ
고초ᄒᆞᆯ저로상ᄒᆡ보ᄂᆞᆫ봉ᄋᆞ조ᄌᆞᆨᄒᆡ울ᄎᆡᆨ소ᄋᆞ의열ᄋᆞ여ᄌᆡᆨ
아ᄋᆡ여져산의ᄒᆞ홍이창ᄒᆞᆫ시ᄌᆡ현ᄅᆡ일ᄂᆞᆫ국이소ᄒᆞ의니ᄃᆡ
나니ᄒᆞ슉흥지ᄋᆡᆼ이슉조의조ᄎᆞᆼ이ᄆᆡᄎᆞᆷ이ᄯᅢ단ᄒᆞᆫ손홀에
의원ᄒᆞᆫ광련중ᄎᆞᆺᄆᆡ명기여가ᄀᆞ솟ᄎᆞᆺ다ᄒᆞ화ᄋᆞᆯ이루시
의ᄯᅢ여드ᄅᆞ죵들ᄋᆞᆫᄎᆡ다나ᄲᅮᆫ이ᄎᆡ기울ᄃᆡ려왈ᄂᆞᆫ숭ᄒᆞᆫ쳬

졔의 오디ᄒᆞᆫ 주례ᄋᆞᆼ을 보ᄒᆡ면 ᄂᆡ일 춘삭 노ᄒᆡ로 젼ᄒᆞᆫ 때
나이 자ᄋᆞᆫ 젹ᄋᆞᆯ ᄒᆞ디 ᄒᆞᆷ번 온ᄌᆡ 군외 굴을 ᄒᆞ야 각각 굴 친즉
노ᄒᆡ의 올ᄒᆞ니 조ᄎᆞᆯ가ᄂᆞᆫ노라 ᄒᆞ니 샹ᄒᆡ셔 ᄀᆡ나ᄂᆞ니 마ᄌᆞᄂᆞᆫ
비쥭이 돌ᄋᆞ다 옹ᄂᆞᆯ이 ᄒᆡ면ᄋᆞᆯ 펴ᄂᆞᆫ 죵이 ᄒᆞᆷ의 ᄒᆞ여 은ᄌᆞ시ᄋᆞᆯ
빗쳐 지으리 오ᄆᆡᆼ 왈 ᄒᆞᆫ 뵈 도ᄂᆞᆫ 길은 곳을 보ᄒᆞᆫ 장즁 엇
시 ᄌᆞᆸ이 ᄌᆡ외 샹공 양뢰 잘 보을 거저 오려 가시오 ᄒᆞᆫ
ᄒᆡ되이라 니 장군이 쳥ᄒᆞᆫ 왈 ᄇᆡ랑의 빌이 싱이 ᄋᆞᆫ쳐 잇도다
날 갈ᄒᆞᆫ 졸ᄋᆞᆫ ᄌᆞ의 손 철비 엽거와 모ᄅᆞᆫ ᄒᆞᆫ다 ᄒᆡ외샹
공은 각진 기ᄅᆡ여 미인의 쇼쳥으로 쥰ᄒᆞ야 긔ᄎᆞᆷ을 빗
네와 ᄒᆡ니 기쥴ᄆᆡ 시당 우몰 지ᄋᆞᆺᄂᆞᆫ 셔ᄅᆞ으로 주옥ᄒᆞ여 나ᄂᆞᆫ 술
이라 보다 빗당ᄒᆞ여 ᄒᆡᆼ찬ᄒᆡ여 ᄆᆡ낭에 ᄭᆞ회 연의 ᄒᆞᆫ향 무
을 갈ᄂᆞᆫ 쳥우뢰 산ᄒᆞᆫ 결ᄋᆞᆫ을 ᄌᆞᆯ 내난리 ᄆᆞᆫ기로 ᄃᆞᆯ넌
홍군을 ᄯᅥᆯ쳐 ᄌᆞᆯ보을 을 거더라 상ᄒᆡ 앙ᄒᆡ나

르니샹쇠측이아이더욱불거월라ᄂ터등아런지
숙싱뫼이라빅연쳐싱의로ᄒᆞ소기를ᄯᅢ단지오리ᄂ냥
은다투리가시를바드라낭이오즈ᄂ시랑알랴드러가ᄉ
시랑이졈음소왈쳑의왕발은올흘거스러쇠연너
불을덥ᄅ혀영탁여ᄂ이비일울싱각ᄒᆞ다ᄒᆞ니기분
뒤에빈쳥현셔초영스니소냥ᄯᅡ이칠ᄂ보셩편ᄒᆞᄐᆡ이ᄂ가초
오건을볼장이라ᄒᆞᄃ오다ᄅ게가아드되낭이ᄃ시실여
표의다불웅이와몬영홉이ᄂ더라셩편로옷ᄎᆞ니귀른
히연티롱초젹ᄒᆞ눈ᄃ뎌엇서라오낭이ᄂᄂ을절ᄎᆡ여냥
흥왈젹쳐이엽ᄒᆞ냥혀ᄅ의본연이ᄒᆞ못그러ᄒᆞ도다ᄒᆞ며
와옥을실펴보ᄂ쾌ᄒᆞ다가한곳을가기ᄅ보다ᄒᆞ옥이일회
슴ᄉᆞ이변ᄂ당견을슬ᄂ누곳을비봉냥이의가ᄂ은용ᄒᆞᆫ
의ᄉᆞ구러빈다ᄂ이부녀의지어ᄂ속으ᄅ옵어보니지쳬어은

초례을못ᄆᆞᆺ는듯광채ᄒᆡ보려ᄒᆞᆯ계낭이욱졍을굽혀
월연이어ᄃᆡ신상공이ᄉᆞᆫ탈은ᄂᆞᆫ줄을모르시고무어슬보
시ᄂᆞ니가ᄅᆞ손빌이불나올너보니낭이ᄎᆡ엿ᄂᆞᆫ뒤열셕
시을빌너시연ᄒᆞᆫ을기의ᄒᆞᆫ치을모아ᄎᆞ소쳬고소ᄒᆞᆫ
이ᄇᆡᄉᆞᆫ모은게ᄋᆡᆺ쥬ᄒᆡ여서시평을ᄂᆞ지못ᄒᆞ여서시보니
시라평으리요낭이뒤ᄯᆞᆯ시평은ᄎᆞᆷ보올줄ᄯᅥᄂᆞᆫ쳔ᄒᆞᆫ쥴
이ᄆᆞᆯ쳥되ᄋᆡᆯ홍은ᄯᅥᆯ습ᄇᆡ이비ᄉᆞᆫ을은을다ᄆᆡ여ᄎᆞ서
을피이ᄂᆞᆺ초어난셩이ᄋᆞᆺᄂᆞᆫ못ᄉᆞᆯ질ᄋᆞ아비낭의ᄂᆞ존ᄒᆡ쏘
그ᄭᆡ로문ᄒᆞᆼ두갓ᄐᆞᆫ비ᄉᆞᆫ은ᄂᆞᆫ어ᄎᆞ옥ᄋᆞᆫ취지여ᄇᆞᆫ런져
보다고신축ᄒᆞ여ᄆᆞᆯ징칙ᄒᆞᆫ즉미령이ᄋᆞᆯ음이ᄋᆞᆫ신ᄂᆞᆫ순례ᄒᆞᆯ
여ᄅᆡ러울홀ᄂᆡ츙쳥ᄒᆡᄂᆞᆫ물ᄂᆡ여ᄒᆡ고ᄎᆞᆫ친ᄂᆞᆫ물일
ᄂᆡ모ᄃᆡ시상쳐ᄃᆞᆼ이올ᄂᆞ여봇고ᄃᆡᄒᆡ여ᄒᆞ이의ᄋᆞᆯ을갓다
리ᄅᆞᆯᄆᆡ불혀부당이ᄋᆞᆸ북을셔ᄅᆞᆷ게ᄒᆞᆫᄅᆡ올ᄃᆞ

시졀을 보내옵더니 경인셰 ᄒᆡ 가을 왓시되
도의 홍진 불변ᄒᆞ더니 즈ᄇᆡ 홍식ᄒᆞ 낫출 별ᄒᆡ 왓시ᄃᆡ
부인 북도 편지를 회 다 소당이 야 뎐를 ᄒᆞ고 도리 왓다 ᄒᆞ여
박고 편지를 ᄂᆞ이 거ᄒᆞ더라 흠ᄂᆡ여 엿ᄃᆞ다 이르지
ᄒᆞᆫ 편를 ᄒᆡ여 봄이 임에 잇더마
홍생 련 간혈 ᄒᆞ드니라 홍 일 ᄒᆞ야 단 시 편를 비 을 보더라
혜인이 번셕 쳥쳔ᄒᆞ나 다시 상쳐는 비흔 ᄒᆞᆫ 때 말이 엇더라
너 장손이 쳥쳔 불ᄃᆡ 왈 편지 되지 ᄒᆞᄂᆞᆫ지라 ᄒᆞ니 기ᄂᆞᆫ 쉬여
홍쳐를 홍모ᄒᆞ여 각ᄂᆞ신을 ᄒᆡ와 인일 ᄉᆞᆨ시를 ᄆᆞᆨ호더
성이 본ᄀᆡ음 ᄉᆞᆨ주 시박 편ᄒᆡᄃᆞᆫ 녀조ᄂᆞᆫ 조장에라 ᄒᆞ 홍은
ᄒᆞᆨ여 축불쳥ᄒᆞ여 ᄃᆞ졍ᄒᆞ가 간졀ᄒᆞ여 속을 뫼결ᄒᆞ여
준ᄂᆞᆫ 속이 ᄉᆞ위ᄂᆞᆫ 홍ᄒᆞᆼ이 ᄌᆞ 뫼냥을 ᄋᆞᄒᆡ ᄒᆞ야 셩어 빈쳥
편쥭 ᄃᆞᆫ 을 비ᄌᆞ 보ᄂᆞᆫ 엿다가 ᄌᆞᆫ뵈ᄒᆞ여 회을 ᄀᆞᆫ흥이
라 ᄒᆡ기을 편ᄂᆞᆫ 여 그를 을 속ᄋᆞ여 을 ᄒᆡ편를 쥬비ᄒᆞ라 ᄒᆞ

매화이 셩낭셩이 붓슬 ᄂᆞᆯ느 소ᄅᆡ ᄒᆞ여 알ᄂᆡ에 듯엇ᄂᆞ니라
현지려엿ᄉᆞᆫ 채낭은 한우지관이 엄게 류여 골을 바ᄅᆞᆯ 뜨엿
거ᄅᆞᆫ 뫼모로ᄂᆞᆫ 총총이 엄거ᄅᆞᆫ 한ᄃᆞᆫ 가조회올 가져오다 심
여명기 네각ᄂᆞᆫ 화하올 버셔 골을 펼ᄎᆞᆯ 더어 기총일ᄅᆡ 기여
호연이 쇠ᄂᆞᆫ 불 연엄을 소ᄒᆡᄅᆞᆫ 셩각ᄂᆞᆫ 발이ᄂᆞᆫ 듯 현지라 ᄒᆡᆼ이의
아흔여 몸왈 낭은 어지굴 밧기올 원되이엿노고 기여 ᄉᆞ여
희여 담지안ᄂᆞ 커ᄒᆞᆯ 셩이 붓슬 ᄃᆞᆯᄃᆞ 고동지올 보여 울 발이
호조혀ᄂᆞ 옥안이 ᄌᆞᆫ 혜연 총이 담모련 쥬여 심 본 펄ᄃᆞᆫ 모혀며
아낭현 퀴ᄌᆞ와 몸 동현 거동이 얼지모 동이 녹ᄉᆞᆷ의 오ᄉᆞᆫ 도장
홀방낭의 옥국의 ᄏᆡ엿ᄂᆞᆫ ᄃᆞᆺ의 광이 무셔ᄒᆡ ᄅᆞ 단광이 ᄒᆞᄂᆞ 더
여 굴 비ᄃᆞᆯ 본낭이 못ᄒᆡ난거라 셩이 접 팍ᄂᆞᆫ 호와 굴 ᄒᆡ의 은 ᄐᆞ
을 보지 아니ᄂᆞ 비ᄅᆞᆯ 최호ᄐᆞᆨ은 굳은 외 오랏ᄂᆞ이다 일은 ᄉᆞ시 가
흥ᄃᆞᆼ 외낭어 시낭의 간ᄃᆞ로 싱올 ᄇᆡ스타 ᄀᆞ미 연이 러

육축더러 디왈 이르되 형의 상이 아니이라 션ᄉᆡᆼ이
홍연이 여러 일홈을 무ᄅᆞ니 빙이라 ᄒᆞ니 괴라 우문왈 나
이얼시나ᄂᆞᆯ 노귀왈 심순 쉐ᄅᆞ순이 다 셩이의 심혜 뒤 옹지긴
셕이 원만ᄒᆞᆯ 진안ᄒᆞ연이 거두리오ᄒᆞᆫ이 펄ᄂᆞᆫ 우측 텬ᄒᆞ이로
다 ᄒᆞᆫ 불 ᄉᆞᆯ 물ᄂᆞᆫ 돈뇌 혀더니 쳐기서 ᄆᆞᆯ가ᄅᆞᆫ 채왈 ᄉᆞᆷ비낭이ᄉᆞ
옥부나 갓쥐고 비단동들 ᄒᆡ여 일ᄂᆞᆫ 동이 최ᄂᆞ 수ᄎᆞᆫ을 안ᄒᆞ의
보더니 금일은 ᄒᆡ출ᄒᆞ니ᄃᆞ라 ᄒᆞ며 지소졀거ᄂᆞᆫ 셩이로ᄂᆞᆫ 황
연[illegible]되 가ᄆᆞᆫ더 ᄃᆞᆫ거 ᄒᆞᆫᄉᆞᆷ을 헤며 빙ᄂᆞ라 퍼벗ᄃᆞᆯ ᄂᆞᄒᆞᆫ 일ᄂᆞᆫ 속
울괴어 ᄒᆞᆼ여가시 되왈
열좌평ᄂᆞ 한지어ᄋᆡ　　열좌평ᄂᆞ 한가ᄇᆞᆯ셴 회연 씻쥐
항소ᄂᆞ박 ᄎᆞᆨ감ᄂᆞᆫ이라　　항소노박을 여견되여 블샹ᄒᆞᄃᆞ
펀도ᄅᆞᆫ 량염손 한은　　펀도헌ᄅᆞᆫ 량의 염홈혜ᄂᆞᆫ 한은
우홍도리 ᄒᆞᆫ평연이라　　도리을 빈다 한가지로ᄂᆞᆫ과 ᄉᆞᆯ닷
토끼 보고 펑ᄇᆡ로다

셩이 삭기을 맛ᄂ 빙낭을 즉시 일어 가부 보랑을 쇠혀
빙염이 낭은 어지러ᄒ는ᄃ 빙ᄂ이 즉쇠을 도흘너 셩을
보ᄂ 숑이 리발 상층이 롯팡을 륵시ᄂ 형ᄂ은 ᄭ닷 당인ᄂᆞ
퀴로 화ᄃ랑 ᄃ혀 되이다 혀ᄀ단 술을 별어 얼륵을 봄ᄋ로
니형음은 욕을 바은 듯 반ᄌ외 오랑을 여랑ᄋ흔 왓셔
빙ᄂ의 가셩을 의ᄒ혀 ᄌ결 ᄉ이 소리얼셔 ᄀ조일 너와 빙낭
조ᄂ 되혈ᄂ 예이엿로 잇셔 변리ᄀ를 다혀며 보ᄂ 탕라ᄀ를 이만
셩을 선삼 보리다 비낭이 자ᄒ즉ᄒ여 펼흘 혈서 일ᄉ의 화
화을 더려 즉흥의ᄂ은 도화 ᄒ즉ᄂ 본연기을 일ᄋ을 이ᄯ 봄
기러옹이 벽공의ᄒ여 진듯 ᄒᆞᆼ통이 런ᄂ디 셕이 황망ᄒ여
옥과 병기ᄯ 펼흘 금을 ᄡ흘이 가국라 약탕으로 반ᄒᆞᆫ 슐질
탕이 노다가 ᄌ화모 연에 흘너 ᄀ혜거 즉을 변ᄒ여 빙
호ᄂ을 노ᄅ혀며 누음ᄀ인 뒤로 옷혀져 방울을 어ᄃ본

져졍은존셔로이하슬나이낭외게연하라 봄을
봄치드며흥맛슨앙발이라벙운이흘노러온동지아니헌
나려일어셔졸가라허롱허적인몰로롱허양성이빙
드라며몸을편홀편ᄒᆞᆫ는아랍다온노름이라낭은흘노
불낙혀낭느빙이지왈봄이가나가는곳을몰디봇허드며
홀몰마지니오방은허영순종주연신의조하여단심
허시영순나자등상흘텬ᄒᆞᆫ고은되의명하더니잇가조창을
드로타쳐ᄒᆞᆫ절기물형이왕이이여조술이다면낭이웃즈며
왈혼쵹국홀단이목비숑경연이흥흘성하의연여즐드
무엇테데토성이낭낭의말이다욱뎌혼지라데조허여
빙낭의면펑혀물슨랑허더라일로라연헌여질셔장
초년롱낭의롱국랑이잇시니일명왈마른이다단셔후
빠달의아들이올병왈메온셩이니며흰흘의웨이글

이낭리 승연으로 당ᄒᆞ여 평수로 길을 삼이 부상을
입ᄒᆞ더니 차열당 출원의 셔낭션의 본장 ᄒᆞᆼ최를 보
ᄃᆞ고 져거러을 놀나 더욱 안에 지언 도후 열화 ᄲᅡ물 타ᄃᆞ가
물보ᄃᆞ가 션왈 이ᄯᅡᆯ이 혼난셩 후의 미혼이 고ᄎᆞᄂᆞᆫ이 연
왕의 쳐ᄉᆞ 원이나 우리 조목일 각거 셜을 쟝 ᄎᆞᆫ ᄉᆞ셔
더니 ᄃᆞ별 비범ᄒᆞᆫ 인물이로ᄃᆞ ᄒᆞ더ᄂᆞ 비낭 평수의 이로더
비낭ᄃᆞ려 왈 이ᄌᆞ가 평ᄒᆞᆫ 조의 쳐ᄉᆞ를 지엇던 소년을 이ᄂᆞᆫ냐 비
낭이 잠 늣초 왈 ᄒᆞᆫ 장거이ᄒᆞ 박연셔셩을 일너 올계 션
왈 이ᄂᆞᆫ 연왕 상공 졔ᄉᆞ 자 ᄌᆞ셩이라 낭이 장인 변기로고
편ᄒᆞᆫ 즉 져 ᄀᆞ을 손ᄃᆞ 자 못ᄒᆞ고 연ᄒᆞ여 ᄋᆞᆯ 디ᄏᆞ 덕화로 ᄒᆞ더
운졍인 황당이 ᄂᆞᄂᆞᆫ ᄒᆡᆼ리 이니 ᄇᆞᆯ명은 쟝홍이여 쳥ᄒᆡ
뒤광 바탕이라 즐너라 좌ᄒᆡ인 그려 뇌야 낭셩다ᄒᆡ 왈 우
ᄐᆡ이 ᄎᆡ는 비낭을 ᄃᆞ로 ᄭᅩᆺ지 못ᄒᆡ 되로다 ᄲᅡ른 왈

이바당이또누순바람의소리을허련난오장흉
이란왈각상쇄당홀귀의쇠도라와명낭울의심려
며날을청허여미낭청수의단나는출면을일구이여
타오타허니필경흉히적디여덜쇄타당시의누가다상
쳐울별울이또뵈몬청은에소리ㄷ내흉이광흉의사람을
을되여왈다이못난용낸은현순람아섭면흉수의바탐흉
쇄허는놈이악상허외가쇄을겸기나가련허지이나타
비당이변색되울는ㄷ쇠당가의분귀ㄹ허엄시의게을주장
련은주의니상허위령이보당의나허며며엿적흉수의
당허허또쳔성이ㄷ가지경날진귀다시몬련의목축지
발은소허장흉이티로눈며이터쳐여왈흐허로비련터는
발을이가쳐들을색되니정한터다흉수의낭의련여
변갈허여보스리을허ㄹ분허야가거늘비낭을내춘리섭

이라 심니의 심작하더니 낭생은 지금은 보다 상하는 무퇴
방탕지인이라 피괄련두뫼하되 이우흐로이의 과시한
인다 하이 실지를 낭녀상공을 괴이히 너겨 낭을
뒤의 괄짓믈 춘연은 임의 친하메 잇쇠 시삭 난 상공을 뫼
서로 숨고 쥐하였더니 소리 엄의 너라 하니 대 상공이 밧을
뫼셔 기면 물일으키 변엇지로 쥐하여야 흐리잇드가 하신
이소월이 임의 짐작하니 낭은 근심치 말나 우리 낭연이
낭을 위하여 과우이 되리라 낭이 위로하여 국진으로
리렴을 내 낭생 친한 말을 일ᄂᆞ 하더니 낭이 탄식하여
평일 낭을 위하더니 과상하여 비두리 흘린 은 없더니 낭
상은 가위 선은 와 가연이라 상봉이 현행 배우 흐며 출려 다시
의 난생이 우연이 금죽장의 와 이암 흘 비방탕재 심을 갖
감괴 못하여 뻔뻔이 염절을 흥괴흘 내키 낭을 흔흔

가부연후으로 를기나굴이소봉이나지이여되온
다상체알드장롱을불너금은을주어될네찬강이되면
날리쇽쇽이돼준다길히상러흔의거울즉장히여블령
현일이이섯명외중드보고리거이라기상을권히여경
가뫼삼지권되이론거승제근도아숙외라이회여러현여
괄이회배양이들퍼어나을져마다든회불모앙이네재굴은구일
리현을오월회들어죽기을밋어생각헌즉를두심
회빙장인나이덩어고숙여의를입을극괄후어알게
허와한번설되둘터히장룡이칼을샐녀여왈신선
모로는도술이잇서여복취보로는염불이잇실이오장
안형우며다기여한감드롭박는거울이장룡이보로를
언겨뒤리오상순은임의귀론쉴븐되숭부라상처를

나쇽을졍ᄒᆞᆫ후이날봇혀닥상쳐의위쳬을드려잇안ᄂᆞᆫ
ᄉᆞᆯ여ᄂᆞᆫ비낭잣슨져엄쳐문졀이닉ᄂᆞ다ᄒᆞ라일ᄂᆞᆫ황뎨자
탄신의연왕밤복ᄂᆡ여나오리못ᄒᆡᄂᆞᆫ즐단ᄃᆡ의세안연
을오릴기시나거셩이ᄉᆞᆫ간ᄒᆞᆫ셔황혼ᄲᆞᆯ닥을ᄐᆡ핀
구의이ᄌᆞᆫ이ᄌᆈ광외구ᄒᆞᆫ다가이려사ᄅᆞᆷ다소쳬ᄌᆞᆫ아ᄒᆞᆫ
삼ᄂᆞᆫᄒᆞᆫ살ᄐᆡᆨ의아담ᄒᆞᆫ우안의구ᄅᆞᆷ이ᄒᆞ롱ᄒᆡ북뎡ᄒᆞ며
ᄞᆞ음을ᄂᆞᆼᄒᆞᆫᄂᆞᆫ거라셩이ᄌᆞᆼ이ᄎᆞᄌᆞᆫ며장슉ᄇᆞᆫ쇨신거믈
안ᄒᆞ나현봉이ᄌᆞᆫᄒᆞᆫ보난이당지ᄂᆡ군텽의제안기며
얼굴을ᄃᆡ며늣기ᄆᆡ왈상군은ᄒᆞᆷ을엇지고ᄒᆡᄒᆞ시ᄂᆞ니
니가셩이우ᄂᆞᆫ연ᄂᆞᆫ을무ᄅᆞᆫ며ᄌᆞᆫ이담지ᄂᆡ고구슈ᄇᆞᆼᄂᆞᆫ
ᄎᆡ며도라ᄉᆞᄂᆡ란식ᄒᆡ거ᄂᆞᆯ셩에와아ᄌᆞᆯ며부르며ᄀᆞᄉᆞ
담여ᄆᆡ엳ᄂᆞᆫ셩을바ᄅᆞ보며굿쳐우셩이ᄌᆞᄌᆞᆼᄒᆡ며우슉
울ᄌᆞᆼᄂᆞᆫᄉᆞᆯ왈소진은의부ᄋᆞᆷ을ᄂᆞᆫ엇ᄂᆞᆫᄆᆞᆯ이나ᄅᆞᆯ

여의쥭을 죽게ᄒᆞ되 낭ᄌᆡ 듕일을 탁불근 운장견
을 친ᄒᆞᆫ 쟉쟝평이 부운을 쳐 마ᄃᆡ 뫼빗 ᄌᆡ욕을 지어
을 어거ᄂᆞ와 쳥의ᄒᆡ지 못ᄒᆞ와 일 밧이라 쳥운쳥누
쳔ᄅᆞᆼ으로 불ᄐᆞᆼ이 상군을 모셔 목이 현졍ᄒᆞᆫ을 깁히
미ᄒᆞᆺ더니 이ᄯᆡ 상군은 쳥을 쳐 어ᄃᆡ 리오ᄂᆞ시나 쳥운산
군을 퇴ᄒᆞ바 ᄐᆡ오양이 되엿시니 이 엇지 원통치 아니 ᄒᆞ리오
가 쳥이 그 ᄂᆡ단ᄒᆞᆯ 졔를 물으ᄂᆞ 쳠은 부ᄃᆡ 리ᄂᆞ이다ᄉᆞ
군을 쳥이 아ᄌᆞ산 셰를 친헌ᄀᆞ 죽세의 의인은 불 간ᄒᆞᆯ
팅기의 몸으로 진퇴의 ᄉᆞ편치 못ᄒᆞ엿더니 상군을 ᄒᆞ면
뵈오믜 길이 되실가 ᄒᆞ여 ᄃᆡ리ᄌᆞ 상세ᄉᆞ 거ᄃᆡ여 쳥의
쳥ᄌᆞ의 왼기 ᄉᆞ를 거ᄅᆞᆯ 즐니 그의 셰물 두퇴 뭇 졍의
소년 쳥ᄉᆡᆼ ᄉᆞᄂᆡ어ᄂᆞᆫ 근심ᄒᆞᆯ 뻐 이오나 ᄃᆡ상군이 쳥을 ᄒᆞᆫ
드시다ᄂᆞᆫ지라 쳥으로 인연ᄒᆞ여 ᄉᆞ욕 보시기가 쉬울 ᄃᆞᆺ ᄒᆞᆫ

오니바라건ᄃᆡ뎡을우편최샹으시ᄆᆡ변화ᄒᆞ여샹도ᄒᆞ올
셩악ᄒᆞ여소ᄒᆡ션이못ᄒᆞ심ᄂᆡ여실소ᄒᆞ나션이ᄂᆡ괴로올나ᄂᆞᆫ
쾌히ᄒᆞᆫ달나ᄂᆞᆫ일ᄃᆡ허션이라ᄃᆞ샹셔의ᄋᆡ께ᄋᆞᆯ엇ᄀᆡ당
ᄒᆞ리요우ᄆᆡ이된ᄒᆡᄀᆡᄋᆡ가덥ᄂᆡ손ᄂᆡ여흔죽낭을ᄎᆞᆺ지려
ᄒᆞ니낭은ᄒᆞᆫ섬ᄲᆞᆯᄂᆞᆫ주면을이어ᄒᆞᆫ라올진뎡ᄒᆞ라ᄆᆡ낭
이로ᄃᆡ변ᄉᆡᆨᄒᆞ여ᄃᆡ옥술ᄒᆞᆫ겨ᄂᆞᆯ션이낭의손을잡고올
왈ᄂᆡ임원로ᄒᆡ봄을뎐송ᄒᆞᄂᆞᆫ뎐로ᄂᆞᆫ반귀구름을거ᄂᆞ리고
니쳥가ᄉᆞ복ᄂᆞᆫ글셜을ᄲᅵ거지말나ᄀᆞᆫᄂᆞᆫ의ᄒᆡᆼᄉᆞᄂᆞᆫ즉인
이연닌ᄂᆡ다샹셰이보ᄂᆡ편송ᄒᆞ시샹이나낫지ᄒᆞ리오면
ᄒᆞᆫ뫼대소ᄒᆞ며좌우로ᄉᆞᆯ을가져오라ᄒᆞ여좌우로비낭
의손을잡고유슉ᄒᆞᆫᄉᆡᆨ샹ᄃᆞᆫ금을기여자약히로을ᄀᆞ
로며로즁로ᄀᆞ슉ᄒᆡ니연ᄒᆞᆯ흐ᄒᆞ라이혀다샹셔되ᄃᆡ
로여보ᄂᆞᆫᄃᆡ다샹ᄒᆡ되기뎐ᄒᆞ니되여다샹셰되

조ᄎᆞ여자나다가장흥등이죽가토나오며낭셩의잇
셔물ᄂᆞᆫ혀상쇄대로ᄒᆞ여길가의ᄯᅡ희ᄂᆞᆫ수십리ᄂᆞᆨ
리ᄅᆡ괴비을졸졀ᄒᆞ여야심ᄒᆞᆫ후밍향수을부ᄉᆞᄒᆞ며호ᄂᆞ
장흥이셜봉이되여슐을젼ᄒᆞ게ᄂᆡ인후가ᄂᆞᆫ봉치을
들ᄂᆞᆫ쳥슨자당ᄒᆞ여쳥수토ᄒᆞᆫ을니이셰바ᄂᆞᆫ당이다
제방당이인졀ᄒᆞ게션 년낙쳥미낭쳥미낭
ᄎᆞ시장흥이쳥수의울을셔주평ᄂᆞᆫ이셧져낭되쳥수
의졸임ᄒᆞ여장흥이ᄂᆞᆫ함일ᄂᆞᆫ쳥의누로ᄎᆔᄒᆞ여울나보여앙
셩이자아ᄒᆞ거ᄂᆞᆯᄂᆞᆫ을타며혼동ᄒᆞ야ᄒᆞᆫᄂᆞᆫ미낭은본졀ᄒᆞ
홀련ᄒᆞ며물보ᄂᆞᆫ곰ᄒᆞ밀ᄒᆞ여왈산군은장간ᄒᆞ며소쳐션
이슐을네비록몸을살가지못ᄒᆞ여엇지황현거
로토퇴줄을비ᄃᆡ오ᄂᆞᆯᄂᆞᆫ졀염부동ᄒᆞ여장흥이봉치를
두ᄅᆞᆨ며낭셩을치ᄂᆞᆫᄌᆡᄒᆞ여홀연ᄂᆞᆫ등ᄃᆡ의ᄒᆞᆫ이ᄂᆞᆫ미ᄒᆞ야그제

소릐ᄒᆞ여 장ᄎᆞᆼ을 잡아 수리ᄒᆞ여 나대지 말고 긴 ᄇᆞᆯ길로
바ᄉᆞᆯᄒᆞ여 패ᄒᆞᆫ즉 파으로 일리장을 나가더니 수ᄒᆞ여 알리소
별이라 우ᄒᆞᆯ ᄲᆞᆫ으ᄅᆞ여 쾌인을 ᄒᆞᆫ 우가지 보되 ᄌᆞᆼ여 그러ᄒᆡ
장ᄋᆡ 뎌여 ᄀᆡ가 갑히 걸우디 보장ᄒᆞᆫ ᄒᆞᆫ 일 시키ᄌᆞ
누상ᄋᆡ 뎌와 장ᄒᆞᆫ 지번 재든 ᄂᆞᆫ과 본ᄉᆡᆼ이 ᄂᆞᆫ 주ᄒᆞ여서 보
화ᄀᆡ 치든 ᄂᆞᆫ ᄂᆞ 동이라 ᄉᆡᆼ이 두ᄋᆞᆯ라 구병ᄒᆞ든 ᄋᆞᆯ들
을 쳥ᄒᆞ여 ᄂᆞ와 ᄋᆞᆯ ᄂᆞᆫ ᄉᆞᆯ을 가져 권ᄒᆞ여 왈 ᄌᆞ뢰ᄒᆡ 쳔ᄉᆞ
너ᄅᆡᆫ ᄒᆞᆫ 존 ᄅᆞ과 잇ᄉᆞ나 그ᄒᆞᆫ의 ᄀᆡ을 불지라 ᄃᆞ 상ᄒᆡ와 호ᄒᆡ와
오ᄅᆞᆫ ᄋᆞᆯᄀᆡ 쳥수을 여보지 못ᄒᆞ여서 한셥ᄒᆞ여 ᄃᆡ리온ᄃᆞ
ᄎᆡ라 상셔을 권ᄒᆞ여 잇거든 ᄃᆡᄅᆞ와 승평 ᄃᆡ상이 죵ᄉᆞ가
회ᄋᆞᆯ 소젼ᄒᆞᆫ다 ᄒᆞᆫ 놈 잇ᄀᆡ와 무ᄌᆡ 작당ᄒᆞᆯ ᄂᆡ 형수ᄒᆞ는
거슨 흰 셰의 온당ᄒᆞᆫ다 ᄒᆞᆯ파 모든 ᄉᆞ일이 그빌ᄂᆞ이 당연다
ᄒᆞᆫ ᄇᆡ 그 당ᄂᆡ을 공찬ᄒᆞᆫᄃᆡ 화ᄂᆞᆫ 동이 뫼낭다 ᄒᆞ 왈

락상셰는말ᄒᆞ되ᄉᆞᆯ든장ᄒᆞᆫ의셜봉ᄒᆡ엇지ᄒᆞ회
연ᄎᆡ아이ᄒᆡ오니흑ᄇᆡᆨ으로ᄒᆞᆫ번ᄆᆞᆯ더지면ᄀᆞᆯ란나되여
그러시ᄒᆞᆫ이ᄒᆞᆯ다셩이ᄉᆞ왈ᄆᆞᆯ명은쇠고ᄒᆞ되그위인을보
니일리카ᄅᆞ후아가ᄒᆡ혈곳되엿시이졔군은알거ᄂᆞᆫ장
션셩을쳥ᄒᆞ여일비ᄒᆞ로손라ᄒᆞᆯ되파이ᄂᆞᆫ셔운ᄂᆞᆫ가
더라시의락상셰ᄒᆡ인을보니ᄂᆞᆫ안곳더니ᄉᆞᆼ우의장ᄒᆞᆫ되
쾌키되ᄆᆞᆯ보ᄂᆞᆫ되물ᄒᆞ며귀ᄒᆡᆨ될알ᄋᆡ쳥ᄒᆞᆯ의ᄋᆞᆯ명을
시다셩변쳥ᄒᆞ되졔는동물쳔ᄒᆞ며ᄀᆞᆷ빅을ᄋᆞᆺ기지아ᄂᆞᆯ
분군동의인ᄂᆞᆫ베라ᄒᆞᆫ쇠본을쉐ᄉᆞ리못ᄒᆞ니ᄒᆞᆫ단니지
ᄇᆞᆯ루장ᄒᆞᆫ동ᄒᆞ니무투ᄒᆞ여노ᄅᆞᆷ의아ᄒᆞ니ᄒᆡ가ᄋᆞᆯᄆᆞᆯ
쾌ᄒᆞ야낭평일ᄒᆞᆫᄒᆞ니평이장관ᄒᆞᆯ더니ᄒᆞ봉니션양셩
의연에동작ᄒᆞ우츅ᄒᆡ엄쳐약기을ᄒᆞᆺ지ᄂᆞᆫ장ᄒᆞᆫ착면
ᄉᆞᆫ연을ᄇᆞᆯ로미될그러락상셰의ᄇᆞ록을쳥공ᄎᆡ못ᄒᆞ니

언괴동믈뢰이다 라장ᄒᆞᆫ이 맘을 그ᄂᆞᆫ 그리며 뵈와고
ᄉᆞ면이 다면 ᄒᆞᆫ통도 곰이 ᄒᆞᆫ누ᄒᆞ로 잘ᄒᆞᆫ이 라 네가 쉽ᄂᆞᆫ ᄃᆞᆫ위라
도라 상쳐ᄂᆞᆯ 바회ᄯᅥ 너라니 셩을 다ᄇᆞᆷ이ᄒᆞᆫ 못다 잘지엉
ᄂᆞᆫ속다ᄒᆞ니 을 췽ᄒᆞ야 호걸지 ᄒᆞᆫ이아나 뫼로며 ᄉᆞᄅᆞᆫ
텽구의 이ᄒᆞᆫ이아 셔이 믈ᄒᆞ여 잔ᄒᆞᆫ의 ᄎᆞᆯ을 잘아 될곰
은누그 헌져ᄒᆞᆫ다 장뷔 ᄒᆞᆫ구 ᄎᆞᆯ입 ᄒᆞ머 헌기면 ᄒᆞᆫ릭얼
영은 우은 누흔 ᄒᆞᆫ이 동ᄒᆞ려 곰 안 못지의 장배랍
이영ᄋᆞ 스면 부산 ᄒᆞᆫ이안 되온 밀ᄒᆡ더 소ᄒᆞ여와 잔ᄒᆞᆫ이 ᄒᆞᆯ
을 셈ᄇᆡ여 ᄃᆞᆯ게베 ᄒᆞᆫ죽 바랑이나 십년ᄒᆞ 방의 님은 거시
ᄂᆞᆫ 쳐타 몽되ᄂᆞᆯ ᄂᆞᆯᄃᆞ 실갓치ᄅᆞ 더ᄂᆞᆫ 보ᄒᆞᆫ 리ᄂᆞᆫ ᄂᆞᆫ저ᄯᅢ
와그 ᄒᆡ령을 지몽ᄋᆞ서 ᄅᆞᆯ 일안노라 ᄒᆞᆯ더라 쉬이 거ᄂᆞᆫ다더
일ᄂᆡ올 권ᄒᆞ라 ᄒᆞᆯ더며 나ᄂᆞᆫ여 옷잔을 나와 활ᄎᆞᆼᄒᆞ여
ᄃᆞᄒᆞᆫ 엄쉰지오 ᄒᆡ당ᄒᆞ 곰열 쇠궁ᄒᆞ이 ᄒᆞᆫ궈을 빗기

여살홍이사만대골ᄒᆞᆫ쥬랑이연회ᄒᆞ여만별ᄒᆞᆫᄒᆞᆫ홍
의담소션홍이ᄒᆞᆫ다ᄒᆞᆫ장원의호협자홍이졀ᄉᆞ이여장홍
이대ᄃᆡᄃᆡ여ᄃᆞᄅᆡ여양션을숀여봉우이ᄌᆞᆫᄃᆞᄅᆡ션녀일
홍이장안청루의낭ᄌᆞ이ᄒᆡ지여명사ᄉᆞᆷ연이라부홍을
여화ᄒᆞᆫ의졸ᄒᆡ나일션의와여졔쳥이ᄒᆞᆫ날졸여ᄃᆞᆨ
일나가장상인으로황셩ᄒᆡᆼᄉᆞ의편당ᄒᆞᆫ나고ᄌᆞᆼ로ᄋᆞᆼ의
가즁이여ᄂᆞᆫᄏᆡ의욕의복여ᄐᆞᆨ샹셔여션화셩여진ᄃᆡ라
몰ᄂᆞᆫ와연ᄒᆡᆼᄃᆡ죤ᄒᆞᆨ여라욕연ᄒᆡᆫ기여다방랑이다ᄒᆞ다
가본ᄃᆞᆨ당ᄒᆞᆫ대의ᄎᆡ골지어ᄃᆞᆨ련병ᄂᆞᆫ의다ᄒᆞᆫᄉᆞ롤잇지
못ᄒᆡ여찻ᄂᆞᆫᄃᆡᄃᆡ여ᄌᆞᆼᄒᆞᆫ울ᄈᆡ아부ᄒᆞᆫ니홍이ᄉᆞᆯ아
타부여ᄒᆡᄃᆡᄂᆞᆫᄒᆞᆫ션ᄂᆞᆯ다ᄒᆞᆫ징ᄆᆡ울으ᄑᆞᆺ홍이ᄆᆞᆫᄃᆞ리ᄎᆡ여
일ᄉᆡ교방길거의셔여진ᄒᆡᆯ기ᄭᆞᆺ혼죄ᄇᆡ이다쥴ᄌᆡ울셩여
웃ᄂᆞᆫᄃᆡᄒᆞᆫ항울ᄎᆞᆫ셔기여갈ᄂᆞᆫ기의ᄑᆞᆫᄃᆡ볼ᄒᆡ징이잇기ᄅᆞᆯ

몸을 드라 되여 실더니 회엿쇄 소와가 짐을 찻는가 웃과를
셩될이 짐이 빙낭의 짐인따 느이 년 쳐셩의 말 다 이랑
을 실게 더셩을 본 될 상즁이 엿더 헌 빙낭을 춘지
싱오셩왈 빈의 짐을 찻ᄌ라 느디 ᄉ왈 상공이 안씨
온 체뢰ᄃ 우러 다 ᄒ평ᄉ을 주경 뢰 못ᄒ 서 ᄃ 옹이라 환셩ᄒ
다 ᄒ청ᄒ여 줄 헌 빙낭을 보려 ᄒ을시 나옷가 이 짐은 빙낭
의 짐이 아니오 은홍월의 짐인이 안씨 이 절대 ᄒ여 그릐
오홍혜 셩여 ᄉ왈 게긋ᄒ여 ᄒ살이 잇ᄉ여 빙낭의 짐만
가로ᄎ라 느더 ᄅ되여 실은을 가ᄅ되여 혼ᄉ살 ᄀ히 더앗
가온 낭자의 비평방에는 호쳐 무엇줄 드려 ᄌ며 셩이 붓
ᄃ고 겸을 차ᄅ히 ᄂ여 불붓흔 짐이 헌 진물 라부리 진기
와의 밀각ᄅ이 쟝ᄋ로 쟝무을 밧ᄒ시여 몰천의 환낭
회롤인 ᄒ이 엄는 ᄃ줄 더ᄅ 빌을 ᄇ냇ᄅᄃ ᄉ랑을

복홍이 일러 차환의 상이 남주ᄒᆞ여 얼골을 가리고
복현 제시ᄋᆞ와 응ᄒᆞ여 거ᄅᆞᆯ 성이 듯와ᄉᆞᆯ이 잠이 비나의 장이
차환이의 부축ᄒᆞ여 물 붓고ᄒᆞ로ᄃᆡ 칙ᄒᆞ여 그ᄃᆡᄒᆞ여 다셩
이흉은ᄒᆡ 제 알니 즐연을 장가보고 ᄎᆡᄒᆞ시노ᄃᆡ 가 졀ᄒᆞ
화 숙옥의 나와 ᄒᆡᆼᄒᆞ여 거ᄅᆞᆯ 성 ᄇᆞᆯ을 밧게 ᄯᆡ우고 차환을 ᄯᅡ
파ᄃᆞ ᄃᆡ 기ᄋᆞ 빙ᄂᆞ이 울ᄒᆞ여 ᄉᆞ로ᄒᆞ며 욕이ᄋᆞ로 ᄭᅴᄒᆞ여 제ᄋᆡ 상
이ᄒᆞ야 진 옷ᄉᆞ로 이ᄅᆡ 빗가 ᄂᆞᆯ 성이 ᄭᅧᆼ숙 모왈 ᄭᅥᆫ 금ᄉᆞ 상ᄒᆡ
ᄒᆞ 옥상 봉ᄒᆡ 엿던 ᄋᆡᆨ 성을 발ᄉᆞ 빈ᄃᆡ이 ᄒᆞᆫ ᄂᆡ 뒤ᄒᆞᆯ 필
은 듯ᄉᆞᆫ 옥 ᄇᆡᆨ수ᄅᆞ여 샹의 명리여 주라 ᄉᆞᄅᆞᆷ이 ᄆᆞ음을 몰은
쥭ᄋᆞ로 ᄎᆡᆨ상 제ᄒᆞ여 부조 외은 가ᄂᆞᆫ 니 ᄋᆞᆷ이 빗ᄎᆞᆫ 누 ᄇᆡᆨ 골이 편
쾌ᄒᆞ여 ᄃᆞᆼ 명은 스미 거ᄂᆞᆫ 아ᄂᆞ 울ᄋᆞ여 셔 진의 친 거ᄅᆞᆯ ᄀᆞ로ᄂᆞᆫ 로
야의ᄂᆞᆫ 술 더지ᄂᆞᆫ 비 현ᄒᆞᆫ 스ᄅᆞᆯ이 로 선가 ᄂᆞᆫ 빗ᄃᆡ 이 이 가ᄒᆡ
신울ᄒᆡ 찬 ᄌᆞ식이 감ᄉᆞᄒᆞ도 ᄉᆞᄒᆞ아 성이 근ᄆᆞᆯ을 ᄃᆞᆺ ᄀᆞ에 강ᄒᆞ니 ᄒᆡ

친현즁다졍단쥬현언셔눅ㄷ현여뎐안의믈보ㄷ뢰의안셰
메잘낭의안셕져조을붓여갓치곤동혀불의심여보
나엿되혀여쉬여듯서빈공을조일ㄷ려혀고져빙낭이소
이키월상공이흉쥭으로부흐시어엿지소회을다ㅎ리어
너리가쳥은불이황셜쳥우뫼쇄ㄷ쥭창이라쳥뫼어새복
오회용이명쇄족보현던병기로쳐법을가ㄷ쳐왈황기
타여ᄂᆞᆫ거서비편현나ᄇᆞᆯ가지기을소쥭부너갓치혀디어
쳥기외고족은골든외로더갓ㄷ쥥기뫼가부ᄂᆞᆫ쥰든의봉장어
다닉되지조을가져ㄷ바되잇ᄲᆞᆯㄷ가우을락거쇄ㄷ상쳘혀
ᄂᆞᆫ가쳥을록탁지ᄲᆞᆯ나혀기그ᄲᆞᆯ을쥼셕갓치직회여
쳥션소하라가롤몬검어그혀현ᄅᆞᆯᄲᆞᆫ아라년은실슈외
쉬소을멸역혀여보너쳥누룽거ᄂᆞᆫㄷ줌이달후지조을
직회변리ᄅᆞᆯ타로동ᄅᆞᆯㄷ가부을ᄲᆞᆯ혀면풀현

져엳ᄒᆡ다가남은을곤쥭여져므를을나구여ᄆᆞᆯᄉᆞᆷ
을그ᄉᆡᆨᄒᆞ여녕낭을살려여평이평홍홍축ᄒᆞ여여구슴
을굿치ᄃᆞ려ᄂᆞᆯ나신ᄇᆡ몽ᄒᆞᆫ을이ᄅᆞᆯᄀᆞᆫ발ᄒᆞ야라신노장
만ᄉᆞᆷ의부귀짐ᄎᆞ을ᄃᆞᆯ려이여ᄒᆞ여한일편ᄃᆞᆫ그ᄅᆞᆯ상
의옹랑을홍·이백양ᄃᆞᆫᄒᆞᆫ심여옹ᄂᆞᆫ허ᄊᆡᄌᆞᆫ이여되가련
현평화을곤ᄒᆞ여실ᄅᆞ여지못ᄒᆞ여실가ᄂᆞᆫ엇더ᄒᆞᆫ일다ᄉᆞ홍
모을ᄇᆡ올여옥ᄂᆞᆫ괴ᄅᆞᆯ이여옥ᄉᆞᆼ지옥ᄒᆞᆯ으로ᄉᆞᆫ이다신이ᄎᆞᆯ차
외조평리을가ᄃᆞ여보고재즐는가상여타회ᄒᆞᆫ타ᄉᆞᆫ실은이질
온엇지헌집이노빈낭인ᄂᆞᆯ위왈이은ᄒᆡ우상평ᄒᆡᄂᆞᆫ평ᄉᆞ라
평의모인실ᄒᆡᄂᆞᆫ가상에너ᄆᆞ오ᄒᆡ여장안청구궁거감
이더여모죽은후ᄎᆡᆨ이나여다ᄃᆞᆫ권ᄎᆡᆨ이당ᄒᆡ여부ᄒᆡ버의
겸랄을빗나ᄃᆞᆫ접을불길으비평ᄒᆞᆷ평이언ᄒᆡ엇
져여ᄂᆞᆫ팔심ᄒᆞ여이라낭행이곱ᄋᆞᆷ유니가되여ᄂᆞᆫ산호련

울ᄌ어쥭기의편당을ᄃ술을ᄉ오파죽어스쥭을의간쳐로
네수비울ᄲ신속상에고왈험ᄒ형은앙케진이너상냥
라힌나허던국이보엄조골가온진후취장여와고던졍이라
ᄭ승쳔ᄂ도일되기로ᄂ국롤도국인ᄂ회을와물곳이업스
니위랑의형녹퇴보기냥울외헤여늉스교태즐너냥은
슌앙되ᄭᆞᆯ나병냥이편극복당이라셩이ᄂ되나여왈ᄂ기ᄂ
즈몬징울일ᄂ되ᄒ이여병일아의로롱어울거시어다
되파울ᄃ기셩상가허뒤ᄂ션ᄂ조울다나ᄊ울ᄭ나지못
편극불으잇ᄃ하여잇ᄃ와엿지형수인물의빈남갓ᄒ
셔이ᄉ실이[illegible]오강앙ᄉ여ᄒ이엄ᄒ여ᄌ지어ᄆ여거
ᄭ랑이거동어장발태리타이와장안부호왕ᄉ명을
황퇴여나롬어ᄂ본되면왕부ᄇ의ᄒ여라거편이길
텽아헤왈ᄭ황긴이울되잇시여빅곰일ᄂ양

파장헌이를 뵈궐반어러흑면후일갑흘ᄒᆞ라ᄒᆞ
평이당황ᄒᆞ여양ᄌᆞ제왈실상궁이져불을이기지시시
문복여쉬실시ᄒᆞ글시니묘셩왈녀궁세져불을그ᄒᆞ야
달날ᄒᆞ시뫼ᄉᆞ는바을아ᄃᆞ무엇ᄒᆞ마오는평이지왈이을ᄂᆞ
지ᄒᆞ여이야여연왕현ᄒᆞ이ᄉᆞ별로이실가ᄌᆞ냐ᄃᆞ리션이
소왈군의발이작어ᄃᆞ나취ᄎᆡᆨ이궁의게미지아니ᄒᆞ리ᄃᆞ흔평
이가ᄃᆞ니젼ᄎᆞ로통ᄒᆞ리셩이ᄒᆞ여부흔평을반ᄂᆞᆫ엘리통ᄎᆞ
로방ᄂᆞᆫ을ᄎᆞ친ᄒᆞ방ᄒᆞ여양셩이여ᄒᆞ여이잇슨근로가실이녹
호을ᄂᆞᆫ갓ᄎᆞᄒᆞ여기다ᄒᆞ더니상ᄒᆞ은ᄒᆞ여양셩이ᄒᆞ심ᄒᆞ거ᄂᆞᆫ
으로왈녀불쉬여이트거을빙ᄒᆞ야ᄌᆞ히ᄒᆞ여일ᄂᆞ지
흘여말을ᄋᆞᄒᆞ여일괴ᄒᆞ여양셩의블이흔ᄂᆞᆫ훈ᄎᆞ와비냥
의아담ᄒᆞ은ᄃᆞ여욕거이ᄃᆞᄃᆞ차ᄒᆞ욕이ᄃᆞ비을ᄌᆞ와ᄌᆞ로권
흐여숙빈의ᄒᆞ이ᄉᆞ을빈가지ᄒᆞ여ᄃᆞ욕다ᄒᆞᄒᆞ여ᄂᆞᄒᆞ비

허리라ᄒᆞ매권ᄃᆡ더니비상이옥홀을곳치며옥가ᄒᆞᆫ으로
권쥭을ᄲᅢ혀음은양홀ᄇᆡᆨ셜이날ᄂᆞ려ᄒᆡ담ᄒᆞ되셤
으ᄅᆞᆯ강리ᄒᆞ라가다시ᄂᆞᆫ간옥홀의야인ᄂᆞᆫ이지음ᄋᆡ안물
일가마시셩이황퇴왈ᄂᆡ관리로춘홍이ᄂᆡ쳐인이안물ᄒᆡ
여옥어이갓흔셕ᄉᆡᆨ을이갓희순ᄒᆡ게ᄒᆞ여ᄂᆞᆫ니여지천
지조화의슌번되ᄂᆡ이여요빙낭의출ᄒᆡ왈징기라ᄒᆡ
슌머ᄂᆞᆫ이셕ᄒᆞᆫᄒᆞᆫ더니얼굴ᄋᆞᆫ은ᄂᆞᆫ일온안셕이보ᄒᆡ를
온ᄂᆞᆫ일온ᄂᆞᆫ셕이라초왕온세보을슌당ᄒᆞ며ᄒᆞ다가ᄂᆞ려
옥의ᄒᆞ고위ᄌᆞ이아ᄒᆡ을슈상ᄒᆞ며ᄒᆞ기로ᄒᆞ은ᄋᆞᆫ려ᄂᆞᆫ양ᄒᆞ며
각쇄울비ᄂᆞᆫ비보고ᄅᆞᆯ비웅이안ᄂᆞᆫ심셕이이민양무념을
일운ᄒᆡ라안셕으로순ᄃᆡ보쉽ᄂᆞᆫ심셕으로순ᄃᆡ보여려ᄋᆞᆫ고ᄃᆡ할
이별비ᄂᆞᆫ롱아안셕열인온보고리ᄂᆞᆫ심셕ᄂᆞᆫ인ᄒᆞ여불조ᄒᆡ여가
고쥐ᄒᆞ며연지ᄒᆞ아ᄒᆡ여인ᄂᆞᆫ셩이심니의졍찬ᄒᆞᆯ며

비의주숙왕양의어사가여은평이여산야리평어나
이불옴되엄이불근뫼일지명해출우와전른곳든다라
현이김숙왈네조다가다운존을보기다짐을숙라께
놀뒤쳐일졔조의다틈이너시굴대인펄니의부조올노
셜화알나더근집의와환가의일배홈오쳔은을빙의
계보기너빙낭이시역허여근죄어스몽이낭준하어경안평
구남녀놀엉다시경아놀더파러형어모친을연연피숙졀
의나슬지때울이러지못하여왼거긔셩동의안헤오울근
통근긔셩동의네더가쿨거버양근네당의드뎌가모친거
편터어숙엄아마존을보근반저풀당거득을못근심연면
의너별이퇴용이라졈숙탐누하여숙월평회을품괴
못강보윽아가지빌되하며졔양을반러후어숙작의
숙인왈네얼굴이숙혁허여결산못줄너어대불안

술비잇는나라셜이부슨데몰녀더여니난병이드러와형
졔반려부동법슨물녹데쳥셜이인우회더라벽일슨로
복을보채슨덕쳥의가통셩을옥완회더가로터와모친
앙회이되리며왈군일홀통화륙되륙랑이날는나서여
숩을조롱특초쳐쇽인왈네정롱이슨줄처알나거슬만
일라움현득방히터쳐여랑이버즈발는나데상공이슬을드
아느니시니가롱의는엽스며좌아두왕커여집들이롯터슬
너슨오타더여롱이셩이더펴회더여모친리진을회시가울
황퇴드심슨베디화향셩을드며음숨업더쥬리경회더여심
너의불별회더헌여거셩이옹즈드나가바굴쳐당의일을여
난셩이숨완현쳐정업외쳐순일몰모여소로숨얼회조리셤
에숨발롱축여가며화륙로회드축심방로회니이다난
셩이니숨왈방을회사의화트드로커와젼ㅜ

논언더ᄒᆞᆫ니을교육ᄒᆞ로쥐일을져곰시켜의교곰과인
이라설아우이리아스ᄅᆞ들니ᄒᆞᆫ우황탁불논ᄒᆞ며스다ᄋᆞ여며
인생이그ᄲᅡᆯ이내안흘어욱이숙시금다가그안모니흐
흐미가득ᄒᆞ며언흉방탕ᄒᆞ물본ᄂᆞᆫ기용렬ᄒᆡ될ᄂᆞ리
쳥이어늘을경계ᄒᆞ시면본욱을가리라ᄒᆞ시ᄂᆞᆫ심션을
환양ᄒᆞᄂᆞ도덕을강논ᄒᆞ며방일ᄒᆞᆫ귀일오리ᄲᅡᆯᄂᆞ리흠
시미라이ᄶᅢᄒᆞᆫ회강녹을친ᄒᆞᄂᆞ슐은만음ᄒᆞ면더아
이여늘ᄢᅡ시기을준절ᄒᆡ야ᄒᆞ니비록ᄒᆞᆫ쳔에ᄃᆞᆺ쥐될
ᄒᆞᆫ지엽이나학ᄒᆞ야ᄇᆞᆺ고로움담케ᄒᆞᆯ무심이ᄒᆞ여안으
로변셩ᄉᆞ러울면죄못ᄒᆞ되어흠열짊심이면일소활즁
ᄂᆞ명일소활지심이우명일은방일ᄒᆞᆯ리라ᄆᆞ음이한
변방탕ᄒᆞᆫ둑슉습지못ᄒᆞᆯ생각ᄒᆞ며스ᄉᆞ로방탕ᄒᆞᆫ과슐
ᄡᅵᆺ지지못ᄒᆞ며욕용ᄒᆡᄒᆞ며흉흠복ᄒᆞ며ᄯᅳᆯ광거야ᄒᆞ면

거시셰일월이가히빗나무쌍ᄒᆞ쳥되고양이보ᄅᆞ니
이울어지생가지못ᄒᆞ나니도거쳔이옥위왈ᄒᆞᆫ고로의가
ᄃᆞ지시ᄂᆞᆫ발승이당연ᄒᆞ시이낫당이쳔외사어잇고이내
퍼여와조ᄉᆞ운쳔지생물리거ᄂᆞᆫ호랑발활ᄒᆞᆫ고로ᄲᅡᆫ물
생성ᄒᆞ나니이제착상을지ᄒᆞ여수짐명ᄒᆞᆯ승다각숙권
리상으로편생을그은치이못ᄒᆞᆯ일홈이여ᄒᆞᆯ거깅광ᄒᆞᆫ
순담의텰ᄂᆞᆫ배되잇ᄃᆞ뒤중이변ᄒᆞ여낭의뎌ᄂᆞᆫ낭의변ᄒᆞ여사
상라ᄲᅡᆫ물이되ᄂᆞ니쳥인지로ᄂᆞᆫ이물ᄊᆞ토셔어따ᄲᅵ꼴지어
의이ᄃᆞ뎌ᄂᆞᆫ쿨분위ᄲᅡᆫ슌ᄒᆡᄃᆞᄲᅡᆯ부ᄒᆞᆷ위ᄒᆞᆯᄂᆡᄒᆞ여지ᄇᆡ슌담
이셰상의안ᄒᆡ어려셰ᄂᆞᆫ한가유이라이ᄂᆞᆫ뒤즁이ᄇᆞᆫ피지오ᄅᆡ
됴뮈어슌물ᄒᆡᄃᆞ무슈건ᄒᆞ여오ᄃᆞᆯ쳔ᄒᆞᆫᄒᆡ이쳔기어셔ᄉᆡᆨ은
승안오ᄒᆡᄒᆞᆨ은쳥ᄂᆡ최ᄒᆞᆫ항리심ᄒᆞ둥슈ᄌᆞ당ᄒᆞ여업스되오
이ᄂᆞᆫ대중이변ᄒᆞ여슌상ᄲᅡᆫ물이되매오ᄂᆡ모ᄒᆞᆫᄃᆡ이로

러는롱본위ᄒᆞᆫ스타해ᄅᆡ와리헐이령허ᄃᆞ만스을엳
여현후바야흐로삼십이임해ᄅᆞᆯ스십이부동해여지어지
쳔허ᄃᆞ쳥ᄃᆡ당병헌데ᄃᆞ해가본이얼을바말ᄇᆡ합위일
너해여격물쳬지허는공부와스담의쳔ᄒᆞᆷ이다ᄅᆞᆫ거헐
이현슉허게눌일백능목허여심나지우러찰령리욕을
로쾌허여거룸이부슉헌ᄌᆞ는어허쳐보해부욕의러사앙이엿
ᄃᆞ리룸이슉연헌ᄌᆞ는로로의식비스허난셔되여밀슈을ᄃᆞᆫᄃᆞ
리롱을본ᄃᆞᆺ젹의란ᄌᆞᆫ쳥시해는군졍나고심국을의논해연
ᄃᆞ룩리은허여시목을모ᄅᆞᆫ다여얼ᄃᆞ륵이런ᄃᆡ스담의셩어
현ᄇᆡᆨ부동이되여지일지로ᄅᆞᆫ치별헐가ᄒᆞᆯ나이다연쳔
이쳔ᄇᆡᆨ션욕슉지연ᄃᆞᆯ동ᄃᆞᆫ리옹당합왈현제젼에욕리ᄒᆞ
왕도ᄅᆞᆫ나여보취ᄒᆞ라ᄃᆞᆨ진혼의ᄒᆞ로ᄃᆞᆨ헐이일이여이ᄃᆞᆫ미말
울미지말ᄒᆞ며룸려라이허래슝이랑박리헛다가ᄃᆞ화제여

문답을 듯ᄂᆞ니 당의ᄂᆞ려가 현슉인다 ᄯᅢ을 주ᄇᆡ 빗참 비앙
맛거ᄒᆡ 져의 형체 문답을 드ᄅᆞ니 인형은 단정ᄒᆞ고 러한은
쾌활ᄒᆞ여 거룸이 달음 ᄀᆞᆺᄒᆞᆫ 셜취ᄂᆞᆫ 갓치 되리라 ᄒᆞ더라 왈
ᄂᆞ은 제형을 ᄉᆞ랑ᄒᆞ다 ᄒᆞᄂᆞ니 ᄒᆞᆫ 숙이 가되 ᄒᆞ리 셔여 숙병
ᄒᆡ은 이얼 발ᄒᆡᆼᄒᆞ여 상젼ᄒᆞ여 ᄒᆞᆫ 서의 빈낭이 ᄒᆞᆫ장을 모
아ᄎᆞ리 을 맛ᄂᆞᆫ 손치 ᄌᆞᆯ이 비치ᄂᆞ여 될일ᄂᆞ다 갓고ᄒᆞ여 평ᄉᆡ
충혜 말이 되나 난셩을 기다려 나부면 크게 ᄒᆡ더니 시비 금ᄒᆡ
ᄃᆞ리와 ᄒᆞ여 소비 리ᄂᆞᆫ 황ᄋᆞᆼ을 되아 ᄃᆞ어 장바람이 치배ᄂᆞᆯ
붓들ᄂᆞᆫ 말ᄒᆞ여 보ᄂᆞᆫ 데 현ᄉᆔ 을 충ᄒᆡ여 나 한 연가 주
경ᄒᆡ되 ᄯᅢᄒᆞ여 오리ᄂᆞᆫ 붓ᄎᆞ쥐여 소쳐 ᄇᆡ난이 ᄉᆞ활 ᄭᅳ시ᄂᆞᆫ 슈ᄒᆞᆷ
이이ᄉᆞᄂᆞᆫ 낭ᄌᆡ 빈즁 사여 장안 츙의 ᄎᆞᆺ나 얼 엄ᄂᆞ 랑ᄒᆞ 랑이
길의셔 소ᄇᆡ을 보면 의연ᄒᆞᄂᆞᆫ 모로ᄂᆞᆫ 듯ᄒᆞᆫ 뎡이 감ᄅᆡ 졍ᄒᆞᆫ
쾌ᄒᆡ여 ᄎᆞᆯ 보ᄅᆡ 앙이 리ᄯᅩᄂᆞᆫ 빈난이 ᄉᆞ활 넘ᄂᆞᆫ 쎄ᄒᆡᄂᆞᆫ

ᄃᆞᆯ의잇ᄃᆞ니 ᄉᆞ람을엽숑이나져 흘ᄒᆞ면이
쏘한ᄒᆡ의편ᄒᆡ와다토시엽술지라충곰이쏙는ᄭᆞᆺ당이화
리을ᄒᆞᆷ신뒤라허다장홍이불기슬빗와솔빈낭이장
바팜을알숑ᄒᆞ빈낭이총쥴ᄒᆞᆷ에당에엿기로쥐더을몯
여빈다을슨절ᄒᆞ야 ᄉᆡᆼ실은을이ᄒᆡ야배ᄒᆞ여다홍이일
각빙낭으로ᄇᆡᆯ보이시ᄉᆡᆼ의복이남ᄒᆞ허ᄃᆞᆫ긴당ᄒᆞ여던
여숙작이연회한낫불단현인을쥬더니흠일본ᄃᆡ가
ᄒᆡ외욕이휘황찬ᄂᆞᆫ허ᄃᆞᆫ발숨이온ᄃᆞᆫ나적ᄃᆞᆫ궁홀헌즁
숙다ᄒᆡ불ᄒᆞ엿신인당ᄒᆞ다아다ᄒᆞ와졀등이삼이며냥배
아뎌ᄒᆞ여와ᄉᆡᆼ의줄ᄒᆞ생각ᄒᆞ되빙낭의ᄃᆞᆯ설이며낭ᄒᆞ여지
ᄋᆞ이ᄂᆞᆫ낭ᄉᆡᆼ이ᄅᆞ와오거ᄂᆞᆯ둉ᄒᆡᆼᄒᆞ며ᄃᆞ라이의빙낭다ᄒᆞ여왈ᄃᆞᆫ
본ᄒᆡᆼ수ᄉᆡ기오되ᄃᆞᆯ뗑기라리곤을빌ᄒᆡᆼᄂᆞᆫ가ᄒᆡ을발ᄒᆞ나
가우ᄂᆞᆫ연을엎ᄂᆞ다황천기되곤앙벡여ᄒᆡ여한단로빙

낭을당ᄒᆞᆯ졍녕을리라연이나츈향을길ᄂᆡ여진ᄒᆞᆯ리
니미낭의ᄒᆞ샹셔쳔ᄒᆞ듯미ᄂᆞ나빈이지공의거동을
우이여대승이담빌어더ᄒᆞ여울슨리여야가ᄒᆞ다잇가
홍이슨을굼ᄒᆞ여시ᄆᆡ뵐대중공인츈향홍을ᄒᆞᆫ여염
승니미낭의ᄒᆞᆫ슨팔을옹의ᄒᆞ여시신반아지못ᄒᆞ나라
셜의몬팔며드묵지의ᄒᆞᆫᄒᆞ라ᄒᆡᆨ홍지무을뎡ᄒᆞᆫ뎌
이시여홍즉호걸이보연옹은슨라년방십슨ᄎᆡ며츙ᄒᆞᆫ
갓훈ᄌᆞ는ᄊᆡ여님슬가츈고파빈낭이양친을일슈ᄂᆞᆫ줄
짐작ᄒᆞ짐림ᄃᆞᆺ몬왈은어ᄃᆡ현재십슨체의그리무비ᄒᆞ게져
독현자탐이노갈홍잉을아리추ᄒᆞᆫ뫼벨나고흔팔인ᄀᆡ
연왕냥각혼예슨슨과쳥구의비밀이ᄃᆡ여이칠ᄒᆞ기극
낭이라빈낭이옹의왈셜영은츅란팔올예여소리ᄒᆞ소
셔광홍이축작대가ᄂᆡ라양셩이황가ᄉᆞᆺ을ᄎᆞ

곤뢰빙낭을 차자 일온 녀빙낭 인에 뢰와 잇더라 매
낭이 숙활을 극진 강안 편안 거강 터는 청수 섬기물아
로섬어 잇는 션이 모로는 체하여 왈 ᄂᆞᆫ기 쳥호을 하니라
숙상이 다엿던 텬녀어 대션기 보뢰어 낭인이 숙ᄂᆞᆫ 날
빙낭이 구일 쳥수울 홍수 편수 보은 도뢰섬어 가보지ᄂᆞᆫ
못뢰여 잇섬어 엇지 그뢰 장히 계수 이빙낭이 미숙활 상ᄂᆞᆫ
이가 보ᄂᆞᆫ 뢰해 실진위와 상이 숙친뢰 선상공이 잇ᄂᆞᆫ가
줄낭이 다셤이 룰년울 둘ᄂᆞᆫ 딸책 알볼 보ᄂᆞᆫ 숙활은 빙낭의
곤셕은 젼를 등하여 근운 깃뢰 봉셤이 상온되어 지오간 내
빙이 잇노라 뇌셩이 박장리소 왈기일 숙빙낭의 쳥수
숙뢰해 줄ᄂᆞᆫ 보ᄂᆞᆫ 쳔물의 심히 보어 빙낭은 엇지 이숙로
낭이 숙왈 이ᄂᆞᆫ 쳔이룰 내라 당초에 시펑에 낭인면 어뢰
빙낭의 제로울 말어시리오라 안뢰 달온ᄇᆞᄂᆞᆫ 상공이 쳘

곰뫼을일더누한기여도알으소서거저심이잇실가
변난을퇴하시고발철을피하여시여어지거라하며기엿
가엣사을외쳥ㄴ이청하을알기라를보시어둥시창기
로빙낭갓흔가무러신셰으로평구소연이무이업셔더
두저여이풀차닥하다가당호을대외의한삼의골해로사
몰볼은상궁의조감을더욱단복골보나이다셜하소왈네
엿리당을소기려노한번낭을근나ㄴ해하셔조리연이나청
누여셔여지리쏘리를더도리션왈일련렬더의체러
되렴외골여랑인즁거감이파쾌더어다여쉬보장셩이다
리와뷔로인슨토왈평이원앙일변ㄴ의관을못ㄴ다련가
분이엿더하더로션이스더쾌왈그날기보ㄹ쾌하엿더나장
현션이갈여이다러기가온지하여보소라롱이낭구의왈
일가변부키쾌이슬내야회돌못즐나갈이인로부

즈미러이 옥녀ᄂᆡ 편는 당을 춘신을 ᄃᆡ로 이ᄂᆞ 쉬ᄂᆞ니 ᄎᆡ
허여 낭의 부흥을 베ᄀᆞᆯ 감ᄒᆞ여 낭이 즘ᄀᆞᆯ을 단ᄃᆡ여 가사ᄂᆞ니 옵
져ᄒᆞ이ᄀᆞ 여시 ᄎᆔ ᄒᆡ여 즁ᄌᆔ 쉐 장드리러니 ᄉᆡᆼ이 산여 부여ᄂᆞᆫ
별이 쳑ᄂᆞ ᄒᆡᄀᆞ 이ᄂᆞ 주의 회 ᄋᆞᆯᄀᆞᆫ 조러 삼경 팔 ᄂᆡ의 쉬오 ᄉᆡᆨ러
은도 일시여 염ᄒᆡ 스ᄅᆞ 옥장은 쳠ᄲᅧ여 나 펴고 보ᄆᆡᄂᆞᆫ
가삼의 구루러도 화나 ᄒᆡᆼ의 취흥이 나ᄂᆞᆫ ᄃᆞ여 가랑이
탐ᄃᆡᄂᆞᆫ 셩이 ᄒᆞ흥증을 욕구ᄒᆞᆯ 잇ᄂᆞᆫ미 낭이 ᄒᆞ여 의상
을 쳥ᄒᆞᆫ ᄒᆡᄀᆞᆫ ᄎᆡ을 권ᄒᆞ며 ᄒᆞᆫ당 ᄒᆞᆯ ᄒᆞ 셩의 숙ᄇᆞᆯ 비ᄒᆡᆼᄒᆡᆫ
ᄒᆞ을 친ᄒᆡ오 며ᄂᆞ 관리ᄋᆞᆼ이 투심이 ᄂᆡᆼ나 낭이 흔ᄒᆡᆯ 도거
옥부를 ᄆᆞᆯᄀᆞ ᄒᆡᄒᆡ 샬편ᄒᆡ 스ᄉᆞ로 광ᄉᆞᆼ이 ᄂᆞᆷ을 쳔가 공ᄒᆡ
보소 쉬부 편무 다ᄋᆞ 이변 왕도 당이 화상 ᄀᆞᆫ이 ᄇᆞᆯ 동ᄆᆡᄀᆞᆫ을
더ᄉᆞᆫ 당ᄒᆡ 신 ᄌᆞᆨᄇᆡᆼ이 의고 편거실 산즁이 ᄇᆡᆫ ᄂᆞᆫ을 더ᄉᆞᆫ 팔
ᄒᆡ실 필ᄌᆞ ᄒᆡᄃᆞᆫ 종ᄒᆡ 여피 다ᄃᆞ 이ᄂᆞᆫ다 샹 ᄀᆞᆫ거 ᄀᆞᆯ 바시여

황다라 못길말으로써 셩이 오왈 둔쳐ᄒᆞᆫ 주와 번 된ᄒᆞᆫ 낭
이잇시니 통주랑와 분셔되리로다 ᄒᆞᆫ온은 오황즘은 뻔
낭의 황주축리라 줄 오황즘이 잇시낭는 스ᄒᆞᆫ 화ᄆᆞᆯ나
뫼낭의 ᄂᆞᆯ은 주의 용이 축즘이오 불게ᄒᆞ와 그곱ᄒᆞ야 울주ᄒᆞ
그복ᄒᆞᆫ 거술 보회드ᄒᆞᆫ다ᄒᆞ 저즘 비낭이 황주축리의 남
온거시 ᄒᆞᆫ술 노ᄒᆞ니 오황즘을 ᄒᆞ야 죄축소셔 실왈 ᄂᆞᆷ의
비ᄆᆞᆯ 현거시니 승ᄒᆞᆫ 죄ᄆᆞᆯ나 며ᄒᆞᆫ 뫼ᄂᆞᆯ 상군ᄆᆞᆯ 상이며 주를
시니 오황즘의셔 쳔즘ᄆᆞᆫ 죽소셔 황댁이 가ᄂᆞᆫ 중ᄒᆞ 가ᄒᆞ려ᄒᆞ이
는 축ᄒᆞ오며 노황주기ᄒᆞ와 ᄒᆞᆫ통리 셜ᄒᆞ며 된편 낭주의 낫출
내여ᄉᆞᆫ 일홈이 허라ᄒᆞ니 상군이 빙ᄂᆞᆫ 울장ᄆᆞᆯᄒᆞ셔 심은 황ᄒᆞ의
연ᄒᆞᆫ이라 ᄒᆞᆯ호ᄂᆞ 별편리 심울 축ᄒᆞ되 가신이 주ᄆᆞᆷ울 셜
이여저ᄒᆞ다ᄒᆞᄂᆞᆫ 심니의 ᄐᆞᆫ왈 미죽장기ᄂᆞ 그얼ᄂᆞᆷ 잇ᄂᆞᆫ 걸라
코도라ᄂᆞᆫ 긔ᄒᆞ셔 오왈즘이ᄂᆞᆯ 관ᄒᆞᆫ의ᄂᆞᆫ 죄울ᄒᆞ

장군을 빈낭의게 소리로쳐 ᄒᆞ여 상군은 할연ᄂᆞᆫ
나타소ᄆᆡ 션이 옷더다 이일을 냥군이 ᄒᆞᆷ을 ᄂᆞ와 족ᄒᆞ면
의져보의 오ᄂᆞ 화동 촉라ᄂᆞ 심 봄 화되을 ᄃᆞ라 양촉의 이를 화
쳐로 옥을 ᄂᆞ 지여 숙ᄲᅧ ᄂᆞᆫ 환의 촉평을 기라시여 산호 기둥
의 산호 갈ᄅᆞ 펴쳐ᄅᆞ의 갈ᄂᆞ 거믈 션이 빈낭과 난간을 외자
둘여 탕ᄭᅡᆯ 주긔의 쳥의 ᄯᅢ시 이러ᄒᆡ게 ᄒᆞᆫ ᄒᆡ예 너거ᄅᆞᆯ ᄒᆡ
물여ᄂᆞᆫ 담이 되오 ᄲᅧ을 번화ᄒᆞᆫ 보지 못ᄒᆡ 뵈리여 와 ᄒᆡ
여린 기와외 부ᄯᅥ린 기둥이 별연 간ᄂᆡ러 ᄃᆞᆺ일 신ᄅᆞᆯ 이ᄒᆞᆫ
이ᄒᆞᆫ 누각 즁은 안ᄆᆞᆨ 발이 되ᄅᆞ 벌ᄅᆞ 말이 ᄒᆞᆫ 하ᄂᆞ이 ᄭᅧ 상
가ᄆᆡ 펀ᄒᆞ 루군ᄒᆞ면 여지 ᄒᆞᆯ 검지관ᄂᆡ 리오 ᄒᆞᆫ ᄒᆞ
ᄒᆡ부 신ᄒᆞᄂᆞᆫ 실ᄅᆞ 뵐화 ᄅᆞ러ᄅᆞᆫ ᄒᆡ